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8년 3월 9일(월) 제706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겸 주간 변혜철 편집장 김정희 인쇄인 홍윤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8(F)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재단이사회 갈등 분출

학생측, '박승준 · 이양희 사법처리' 요구

지난 1월 5일(월) 교직원 신년하례식에서 법인의 이숙경 이사장이 박승준 전 재단전무이사를 비상근이사로 '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법인이사회의 내분은 물론 그 파장이 학교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이숙경 이사장은 이날 창립자인 고 김흥배박사(현 이사장의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며 84년부터 재단전무이사로 학교운영전반을 책임지던 박승준이사의 권한을 박탈하고 자신이 직접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박이사의 이사장직 야심 △이양희 전 재단실장을 통한 사설학원(외대어학원)편법운영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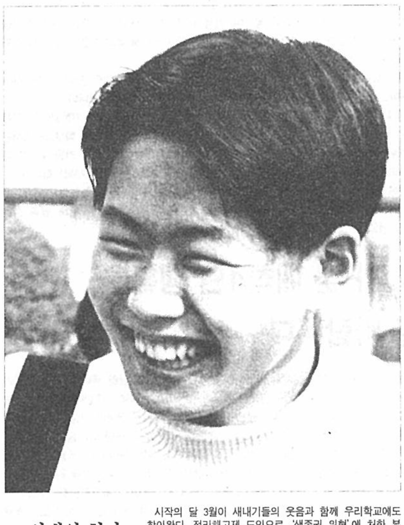
또, 이숙경 이사장은 1월 12일(월) 신한회계법인에 재단감사를 의뢰, 2월 13일(금) 열린 전체교수회의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으며 현재 교육부에 박이사에 대한 임원취소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박승준이사는 '현 이사장을 퇴진시키려 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사실확인 전에 표적조사를 한 것은 온당치 않다'는 내용을 주로하는 반박편지를 교직원들에게 배포하며 맞대응했다.

한편 이 사태와 관련, 지난 1월 6일 교수협의회는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교수들의 반발로 입장을 철회하고 교수협의회 회장 두명(이장희 법학과 교수, 권재일 체코어과 교수)은 이어 열린 2월 20일 총회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직원노조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3월 3일자로 △박이사와 이양희 전 재단 실장 사법처리 △책임있는 의사진행 통한 총장선출과 학사행정 정상화 등을 촉구했고 총무처장에게 소집권이 있는 전체직원회의가 지난 4일 열리기도 했다.

총학생회는 재단관계자나 총동문회장 등을 만나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미 학생들을 상대로 '98 총학답게'라는 유인물을 6차례에 걸쳐 배포했다. 총학생회장 오승훈(상경 · 경영 4)군은 "온갖 비리를 일삼고 외대몰락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박승준과 이양희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대발전 의지가 있는 민주적인 인사들로 이사진이 전면개편돼야 한다"며 총학생회의 입장을 밝혔다.

박윤정 기자



외대의 희망

시작의 달 3월이 새내기들의 웃음과 함께 우리학교에도 찾아왔다.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생존권 위협'에 처한 부모님들의 투쟁과 외대발전을 위해 재단 이사진들의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회 일꾼들의 주장이 하나의 목소리로 들려온다. 그들의 울림에 잠시 돌아서서 귀기울이는 새내기의 모습이야말로 1만 3천 외대의 희망이다.

임승희 기자

총장 선임 일정 연기

재단 이사회 문제 해결된 후 임명될 듯

지난 해 말 타구성원들의 반발 속에 교수들만의 단독투표로 진행됐던 총장선거 이후 올 2월안에 선임될 예정이던 총장이 재단이사회 내부문제로 인해 아직 정식선임되지 못한채 조규철 교수가 총장직무대행을 맡고있다. 현재의 총장선출체제는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1차로 5명의 후보를 2차로 2명의 후보를 투표로 정하고 그 중 한 후보를 재단에서 선임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재단 이사장과 박승준전무이사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사회가 계속 파행적으로 운영돼, 총장선임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모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사장에 의해 박이사는 비상임이사로 발령받은 상태이고 조규철교수가 총장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안병만총장의 임기는 4월 13일까지이나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해' 학사일정에 총장임기를 맞추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확고해, 2차투표 때 1위를 한 조규철교수를 이사장이 총장직무대행으로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총장선임문제가 완전히 끝나려면 재단이사진 내부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독단적 총장'임명'방식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줄 어떤 조치가 없던 걸로 보아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윤정 기자

이장희 교수 한국논단 상대로 승소

'나는야 통일일세대' 관련 용공시비에서 벗어나

이장희(법학과) 교수가 그의 저서 '나는야 통일일세대'와 관련,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서 용공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지난달 6일 서울지법은 "'한국논단은 이교수가 북한체제를 찬양하려는 의도로 책을 저술하지 않았다'는 반론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논단에서 만약 반론문을 게제하지 않을 시 매월 천만원을 이교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했다. 이 판결에 대해 한국논단은 법원에 항소했으며, 3월에서 이교수의 반론문도 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부터 불거졌던 일련의 용공시비에 관해 이교수는 "이 사건이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으로 인한 한총련 탄압, 황장엽 망명, 비무장지대 총격전, 고영복 교수 사건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때마다 터지는 색깔론과 북풍몰이가 선거 후 흐지부지 되는 것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은 다시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교수는 월간조선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한국논단 등 극우단체를 상대로 낸 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재판은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준 기자

빈의자 — 대학당국의 고통분담 논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한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이득을 가로채야만 한다. 이는 대학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재단)은 교육법에 의하면 재단전입금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해야하나, 자신의 돈으로 전입금을 확충시키기 보다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모든 예산을 책정, 집행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아 대학측은 고통분담의 논리를 앞세우며 학생장학금, 기자재 구입비, 기타 학생지원금 등의 학생경비를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당국이 주장하는 고통분담의 논리는 다분히 허구적이다. 물론 대학은 IMF에 의해 타격을 받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그동안 건물 신축을 위한 적립금이나 불용액 등으로 엄청난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96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총수입 대비 판공비 비율이 550개 상장기업의 연간 접대비 비율보다 많다고 밝혀졌듯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판공비, 행사비, 학생지도비 등 불요불급한 부분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학당국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생장학금이나 기자재 구입비, 기타 학생지원금 등의 학생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그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유용하는 일까지 저지르기도 한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진정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려면 먼저 대학재정의 지출구조 개선과 함께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 · 결산서를 완전공개 해야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대학당국이 어떠한 논리를 앞세우든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내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쓰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 시대라하여 대학당국의 고통분담 논리에 이용되어서는 안되겠다.

대학부장

지면안내

방중 도서관에서 IMF나기 ······ 6면
'IMF 학생들' 음식값 아끼려 학생식당 이용 잦아. 그 와중에도 외대식당은 점심때만 열었다는데. 경희대 식당없인 IMF 못견디지요.

문화 제국주의는 있다 ······ 7면
1998년 한국 명동성당 앞 일본식 커피숍 · 호프집, 미국식 패스트푸드점… 한국문화에는 나침반이 없다.

IMF재협상에 대한 외대인 설문조사 ······ 9면
IMF 재협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8%의 외대생이 '필요하다' 반면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으로 답변. 과연 IMF시대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재단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 10면
학내, 재단문제로 온통 시끌시끌. 재단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구요? 글쎄, 확실한건 싸우는게 아니라는 거죠.

알림 — 본보 수습기자모집

본보는 59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 우리학교 98학번 새내기
- 모집부분 : 대학 · 사회 · 문화 · 사진 · 학술 · 만화부
- 모집기간 : ~ 3월 19일(목)
- 모집방법 : 자기소개서, 논술, 면접
- 모집문의 : 서울 (02)961-4152 용인 (0335)30-4112

외대학보

사령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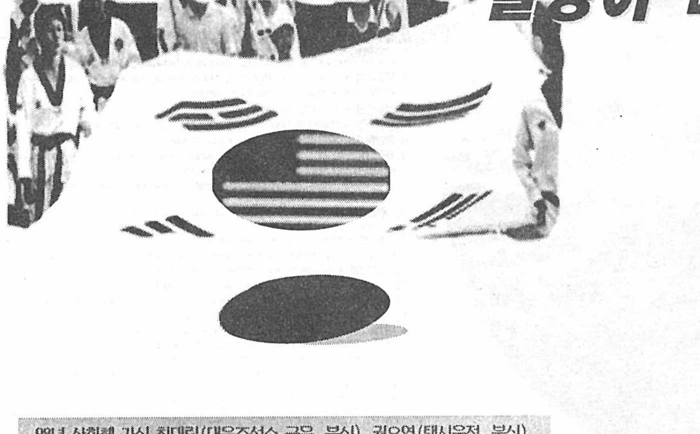
임
김정희(서양 · 불어 3)

면
김태형(법 · 법학 4)

외대학보

전대기련 공동광고 – 제2의 을사조약 IMF 재협상, 경제파탄 주범 김영삼 처벌, 가정파탄·사회파탄 정리해고제 반대. 제2의 을사조약 IMF 재협상, 경제파탄 주범 김영삼 처벌, 가정파탄·사회파탄 정리해고제 반대

'알맹이 빠진 나라, 대한민국'



97년 12월 3일을 기억하십니까?
제2의 을사조약 IMF 협상이 타결된 날입니다.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전시군사작전권에서 경제주권까지,
모두 미국의 손에 있습니다. 이젠 더이상 넘겨줄 것도 없습니다.

정리해고에 분신해 가는 노동자들, 무차별적 단속으로 산화해간 노점상,
생활고를 비관하며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
이젠 더이상 잃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98년 산화해 가신 최대림(대우조선소 근무, 분신), 권오영(택시운전, 분신), 최명아(민주노총 조직부장), 김재훈(노점상)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사설

경제파탄 책임자처벌

범국민적 청문회 개최로 심판해야

92년 '문민정부'라 자칭하며 정치·경제·교육 등 모든 면에서 개혁을 이루겠다던 김영삼 정권. 이제는 그 화려한 출발은 뒤로한 채 자신의 고향인 부산지역에서 조차 '문민독재', '매국역적'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97년 한 해동안 노동법·안기부법의 날치기 처리를 시작으로 한보비리,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요청, 안기부를 이용한 정권 재탈취 기도 등 끊임없이 온국민을 경악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쌀시장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지키겠다던 대국민 약속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저지른 쌀시장 개방과 함께 온데 간데 없어졌다. 이와 더불어 '농수산물 시장 전면개방'으로 국민의 생명줄인 식량마저 외국 독점자본가들에게 떠넘기는 매국적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또 그는 집권 초기부터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며 아무런 대책없이 거의 모든 시장을 개방하는 사대매국적 행위를 저질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점점 약화시켰다. 더구나 외국 자본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장악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아, 이제는 그들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만들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노동자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반노동자적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집권하자마자 어느 동맹국도 동족보다 나을 수 없다며, 마치 통일의 물꼬를 틀 것처럼 떠들던 김영삼은 있지도 않은 북의 핵위협을 구실로 동족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미국을 상전 모시듯이 받들며 대통령 집권기간을 보냈고, 통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백만 대학생의 축제인 96년 8·15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통일 축전 행사를 '빨갱이' '폭도'들의 잔치로 매도하며 유사이래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낳게 하였다. 또 미국과의 팀스피리트 핵전쟁 훈련 재개와 주한 미군의 영구주둔을 위해 수 십억 달러의 주둔비마저 미국에게 바쳤다. 또 자신의 이익에 걸림돌이 되는 백만 대학생의 자주적 대중조직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탄압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경찰들을 동원해 민주화를 외치던 청년들을 죽였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적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다면, 우리는 제2의 전두환·노태우·김영삼을 탄생시킬 것이다.

최근 수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분신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해 버린 이 나라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얼마전 모신문사의 김영삼에 대한 지지도를 보더라도 얼마나 국민이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은 제 2의 국치,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구제금융 요청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범국민적 청문회로 이 나라를 미국에 의한 식민지의 구렁텅이로까지 몰고간 김영삼 정권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한다.

흡산은 HUFS(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의 준말입니다 **흡산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받습니다.

- 자격: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① 제한 없음 ② 아래 제시한 주제중 찬·반의견
- 매수: 200자 원고지 4매
- 마감: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방법: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하이텔, 나우누리(OEDAE))

학내여론수렴의 창구역할을 다하고자 98년부터 특정주제를 가지고 외대인의 <찬반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펼쳐보십시오.
이주의 주제: 학교도서관 24시간 개방
-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세계화 중심대학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선 신입생 여러분들의 전통있는 사학명문인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새로운 일원이 된 것을 전 외대가족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54년, 한국전쟁의 폐허위에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길은 각종 외국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진출하여 활약할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길 뿐이라고 확신한 고 동원 김흥배 박사님의 선각자적 결단으로 창립되었습니다.

목하 우리 대학은 세계화 시대의 중심 대학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44년전 이미 국제화 세계화의 닻을 높이 올리고 출범하여 이 방향으로 특성화를 추진해 온 우리 대학의 선구자적 노력은 국가에 의해 인정되어 재작년에는 국제인력 양성의 최우수 국책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작년 말에는 대학개혁 세계화부문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첫째로 대학에 입학한 순간, 여러분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한껏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는 절제가 없으면 방종과 무책임을 낳기 쉽기 때문에 대학은 동시에 자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스런 입장에서 스스로 계획을 짜되 자신의 책임하에 절제를 하면서 알찬 대학생활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근간 물질만능 사회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만 대학은 이 사회에 대해 가슴 가득 열정을 품고 봉사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고 동원 김흥배 박사님께서는 일찍이 '정심대도'를 제창하셨으니, 이는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어 사회적인 대도를 걷는 훌륭한 지성인이 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셋째, 우리 대학의 교훈은 '진리, 평화, 창조'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자주적 탐구인'의 자세로 진리를 탐구하고, 민족과 인류의 참된 평화에 기여하는 '국제적 한국인'의 소양을 쌓으며, 21세기 전문가 시대에 앞서가는 '독창적 전문인'으로 훈련해 가는 길을 제시해 놓고 이를 위해 교육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본 교의 교육목적에 충실하여 4년 후에는 훌륭한 인재로 사회에 진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건데, 가정교육은 고등학교 시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를 도와 이 젊은 이들을 훌륭히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외대 교수 직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열과 성을 다 받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값진 교훈의 시기가 될 대학4년 생활을 보람있게 보내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대학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훌륭한 선택을 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외대는 일찍이 설립자 동원 김흥배 박사님이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둘러보신 후 이 나라가 앞으로 살길은 오직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뿐임을 깊이 깨달으시고 세우신 대학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 외대의 가족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가 외대에게 부여한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할 것을 확신하며 총장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1996년말, 국가로부터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를 위한 최우수 대학 다섯 개 중 한 대학으로 선정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역사가 아직 50년도 되지 않은 우리 대학이 서울대학 및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다른 사립 명문들과 나란히 어깨를 같이 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1997년에는 교육개혁 세계화부문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에 서울대학교와 교수와 학생교류를 시작하여 양교 모두 매우 만족스러운 교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명실공히 국내외,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사학으로 우뚝 솟았습니다. 뿐만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외대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외대에서, 또한 외대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대학 4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며 여러분은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곳이 바로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 자유가 오히려 당혹스럽고 부담스럽기조차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 선배, 교수 등 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면 합리적인 선택의 방법을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이것은 값진 교훈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대학 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느덧 성인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 시간은 평생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사람도 42년 전에 바로 여러분과 같은 외대 신입생으로서 들뜬 마음으로 교정에 첫 발을 내디뎠었습니다. 그 후 모교에서 교편을 잡은 지 28년만에 이제는 학교를 이끄는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남달리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이 총장인 저와 함께 외대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받고 외대가 21세기에 조국을 이끌어갈 선두에 서서 다른대학을 앞서가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우리 대학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외대의 특성을 살리자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는 신입생들에게 대학의 첫인상을 보여 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신입생들은 새터를 통해 대학의 문화와 특성을 처음으로 정하게 되고, 대학생활을 열어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배워 나간다. 뿐만 아니라 단체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얼굴을 익히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흔히 새터를 다녀오지 않으면 이웃사이더가 된다고 한다.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새터는 과행사, 단대행사, 총학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모든 행사가 신입생들을 위한 행사였다. 신입생들에게 교양과정없이 민중가요나 율동을 보여줬던 것은 다소 무리한 것 같다. 우리가 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세계화나 국제화에 기여하는 주역을 만들어 내는 곳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새내기들에게 민중가요나 율동이 아닌 각국의 노래나 춤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연도 다른 대학과 차별화를 두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래서 각 과에 춤이나 율동, 사회과학에 관한 것보다는 각 과의 특성을 살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동양어대 행사에서 보여준 사회자들의 행동은 소과에게는 큰 피해를 줬다. 대과가 동양어대의 전부이고, 다른과는 들러리가된 듯 했다. 사회자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은(특정과를 부각시키는 행동, 매끄럽지 못한 진행)은 대다수의 학우들에게 거부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새터는 신입생들이 주인이다. 각 과에서는 신입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넓은 안목에서 외대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윤혜영(동양·인도어 2)

명예를 찾기전 인간이 되자

작년 11월 제대하고 나서 올 2학기에 복학하게될 나는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월 23일 오후 도서관에서 괜찮은 조건이 적혀있는 광고를 보았다. 시간당 2천원에 하루 네시간 정도 앉아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식의 내용이었다. 좋은 조건인 것같아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모학과 남학생 두명을 만났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란 다름아닌 3월 한달동안 수업대출이었다. 모시험을 3월에 치루는데 시험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갈 수 없어서 대신 출석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돌아왔지만 마음은 황당함을 넘어서 씁쓸함 그 자체였다.

요즘 신문을 보면 판사비리, 교수 임용비리 등 온갖 비리 등이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드는데 가장 순수해야할 대학사회에서 조차도 이런일이 일어나다니. 당장 그 학생들의 이름을 대자보에 공개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외대에 일어나지 않도록할까 생각하다가 누구나 잘못은 고칠수 있다는 생각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세상이 능력과 자리를 중요시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정정당당해야하지 않을까? 그 두명이 그 시험에 합격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비리공직자수는 두명 더 늘어날 것이다.

김정국(서양·노어 4)

한두 번 해봤냐?

-민주교수-

백지 대자보

주제: 서울대 치대 등 각 학교의 교수임용버리가 심각한데, 외대는…?

부모님이 피땀흘려 번돈을 어만 놈들이 쓴다니 참 웃음도 안 나온다.
-옥에 입-

나도 나중에 재단이 사장 돼야지 - 최고의 연봉이잖아. 안 짤리고.
-짠돌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이 잖아.
-오른팔-

양반이네요! 이사진 임용 비리보다 낫죠 뭐.

다행이구먼! 의대가 없어서
-히잇-

그런걸 뭘 또 물러보냐?
-푸훗-

그럴수도 있겠지.

내가 안 봤는데 어찌 아노!
-맹인-

포하하! 서울대는 깃털이야!
-홍×길-

더 심할껄
-안기부-

正道경영·초우량 LG

'98 LG 21세기 선발대 모집

1. 응모분야 ■ 자연과학분야 ■ 사회·문화분야 ■ 교육·예술분야 ■ 경제·기업분야
2. 탐방대상 ■ 해당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능력을 갖고 있는 각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대학, 기업, 사회단체 등
 ■ IMF체제 극복을 위해 국내기업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해외 수출전략지역 (중국, 동남아시아, 동유럽 및 CIS, 중남미 등)
 ※ 탐방지역은 1개 대륙으로 한정함
3. 응모테마 ■ 응모분야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탐방·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세계 초우량 수준의 개선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테마
 ■ 95년부터 97년까지의 기존 〈LG 21세기 선발대〉 탐방테마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테마 (LG 홈페이지 참조: www.lg.co.kr/21c)
4. 응모자격 ■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 탐방활동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학생
5. 응모팀 구성 ■ 3명(동일학교 학생으로 구성, 전공 제한 없음)
6. 선발인원 ■ 90명(30팀×3명/1팀)
7. 탐방기간 ■ 2주일간(13박 14일) ※ 시기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8. 탐방팀 지원내역 ■ 항공료·숙박비 전액 ■ 소정의 연구활동비
9.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소정양식) ■ 탐방계획서 : A4용지 10매 이내 (• 탐방 분야·목적 • 탐방 일정·지역·대상 • 탐방 활동 계획)
 ■ 학(과)장 추천서 ■ 지도교수 탐방계획 지도 확인서 ■ 재학증명서
 ※ 참가지원서는 각 대학(교) 학생처(과) 및 〈LG 21세기 선발대〉 사무국에서 교부하며 LG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복사 사용 가능
 ※ 1차심사 통과자 제출서류 : 예산내역서
10. 응모기간 ■ 1998년 4월 14일부터 1998년 4월 16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 접수처 ■ 방문접수 :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대강당 앞
 ■ 우편접수 : 121-7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75번지 LG마포빌딩(2층) 〈LG 21세기 선발대〉 사무국
12. 선발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 심사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13. 선발결과 발표 ■ 1998년 5월 20일 LG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14. 탐방팀 의무사항 ■ 탐방보고서 제출(탐방 종료 후 1개월 이내) ※ 각종 자료, 간행물, 사진 등 포함 ■ 〈LG 21세기 선발대〉 행동규정 준수
15. 우수 탐방팀 시상 ■ 탐방보고서 심사를 통해 우수 탐방팀 선발, 시상
 ● 대상 : 1팀(부상 300만원) ● 우수상 : 분야별 1팀 총 4개팀(부상 각 200만원)
 ● 장려상 : 분야별 1팀 총 4개팀(부상 각 100만원 상당의 상품) ● 특별상 : 인터넷 중계 1팀 (부상 150만원 상당의 상품)
16. 기 타 ■ 인터넷 중계 ● 최종선발된 팀 중에서 선정하여 사전교육 및 인터넷 중계 실시
 ■ LG 홈페이지(www.lg.co.kr/21c)에서 기존 〈LG 21세기 선발대〉 자료등을 참조 할 수 있으며 참가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응모된 탐방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LG 21세기 선발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람 (Tel 02-705-3050/2875, Fax 02-701-1507)
 〈LG 홈페이지 : www.lg.co.kr/21c〉

LG

박승준 전 이사, 비리 · 월권 행위 밝혀져

공인회계사, " 박승준 · 이양희 2년간 비자금만 10억"

이번 사태의 중심은 역시 박승준이사와 이숙경 이사장의 불화로 보여진다. 이사장은 14년 간 학교운영전반에 실권을 행사해 오던 박이사 측에서 이숙경이사장에 재단이사장을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자신이 이사장자리에 앉으려는 욕심(?)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올 4월 11일 부로 이사장의 4년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재단 이사회가 계속 무산되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이사회 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이 이사장 중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진행되질 않는 것이다. 박승준이사가 과연 이사장직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박이사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다음 의문으로 제기될 수 있다. 총학생회에서는 이를 재단 이사진의 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재단이사진은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총장과 총동문회장은 당연직이다. 그런데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선우중호, 서입규이사, 문희성이사, 김진현 이사)은 박승준이사의 동문인 서울대 출신이다. 학생회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법적으로 법인이사회는 이 사회임원의 선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이다. 9명 중 5명이면 당연히 과반수인 것이다. 학생회측의 설명대로라면 박이사는 이런 상황에 힘을 얻어 이사장 '야심'을 가졌을 만하다. 그런데 이사장의 반발과 함께 문제가 의외로 커지자 현 서울대 총장인 선우중호이사는 서둘러 이사직을 사퇴했다.

어떤 이는 이번일이 총장선거과정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이 보였다고도 한다. 박이사가 총장선거과정에 필요이상으로 깊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이사가 교수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지난해 말의 총장선거 후보 중 한명에게 '집중사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앞서 언급한 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장 중임논의와 함께 얘기돼야 할 총장임명에 관한 부분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조규철교수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숙경 이사장이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발표된 박이사와 이양회 전 재단실장의 비리사실은 96, 97년 2년에만 금액으로 10억가량이다. 밝혀진 것 중 주요한 것으로는 △학교공금의 사적사용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회의비 초과지출 △외대어학원개원관련 교비사용 △재단과 무관한 출장여비 지출 △이사회 회의록 위조 △외부행사 시 이사장 사칭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박이사측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 자체가 학생이나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많은 분노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노동조합은 지난 3일(화) 발표한 성명서에서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여 직원사회를 분열시키고 노조와해책동을 벌였으며 공공성을 가져야할 사학재단으로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박승준이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했고 학생들도 같은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교수사회에서는 이번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6일 열린 교수협의회평의원회에서 이사장의 박이사 '강등'건과 관련한 우려 표명을 시작으로 교수사회내의 그런 균열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평의원들은 우려표명의 성명서를 전체교수의 이름으로 이사장앞으로 발송을 했고 교수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에 다시 열린 2월 20일 교수협의회 총회에서는 사과문을 통과시키는 한편 부회장 2명이 사퇴했으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교수협의회 회장(정규호 포어과교수)과 30여명에 이르는 평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게 된다. 그러나 교협의 회칙상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임권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사퇴촉구만을 결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회장은 "교수사회 내에 의견차가 좀 있다. 또한 문제의 우려표명 성명서는 이미 사과를 했고 회장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는 재임중에 사퇴한다는 법이 없다"며 "이 논의는 다음 총회인 8월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초의 피해자는 '외대' 교지였다. 교지는 개강 직후 배포할 새내기호에서 표지에 정문앞 '교육개혁 최우수대학' 간판의 사진을 '재단비리 최우수대학'으로 바꾸어 배포하려 했으나 지도교수가 학교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 결국 본관사진으로 바꾼 뒤 배포할 수 있었다.

한편,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고 있는 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박승준 · 이양희 퇴진 · 사법처리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보다 큰 문제는 장기적으로 전 구성원들의 합의 속에서 활동하는 재단이사회를 확립, 외대발전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강력한 기구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박이사에 대한 이사임원취소 신청이 교육부에 의해 받아들여질지가 구성원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재단이사회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윤정 기자

작은 소리도 보여요 "뚜벅뚜벅" '퍽' '삐비비…' 등등.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쓰이는 곳이 도서관이다. 개강이 되자 도서관 소음문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중에 학생들은 충격을 흡수하여 소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고무바닥화를 계속적으로 제안했지만 학교당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임승희 기자

교수연구동을 진단한다

교수연구동은 재단소유(?)

임대료가 모두 재단의 수입원으로…

지난 2학기 교수연구동 1층 소극장의 결혼식장 사용으로 학생과 대학당국간에 심한 마찰을 빚었던 교수연구동 1층 사용 문제가 최근 학교법인(재단)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학기 소극장 개관과 함께 '소극장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대학당국의 독단적 결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소극장을 결혼식장으로 변칙 사용하겠다는 문제에서 벗어나 △소극장 관리자 선정 △고려당(빵집)의 무단 입주와 관련한 문제로 새롭게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얼마전 학교법인 전무이사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학교 공금까지 유용하는 비리를 저질렀던 박승준씨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박남신씨에게 교수연구동 1층 여행사를 주고, 소극장까지 관리하게하여 많은 수익금을 남기게 했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그들은 이를 통해 교수연구동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식에 쓰일 사진 · 비디오 촬영, 신혼여행지 등을 알선해주며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다.

또 박이사가 박남신씨에게 외대어학원 대표자리까지 넘겨주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사건에 그를 대표 또는 사장자리로 앉히고 자신은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교수회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제일은행에 대한 임대료를 대학당국에서 관리를 해야함에도 모두 학교법인의 수익금으로 들어가 대학당국의 예산과는 전혀 관계없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려당이 대학당국과 학생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연구동 1층 휴게실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학당국에서 휴게실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탁자와 의자들을 자신들의 상품 판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처장 김세영씨는 "이러한 문제들은 박승준 전 학교법인 전무이사와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 잘 풀릴 것이다"며 "그 후에 이 문제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외발추) 위원장 제성훈(서양 · 노어 4)군은 "박승준 · 이양희 퇴진 투쟁을 통해 외대 전반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것이다"며 "대학은 순수한 학문을 연구하는 신성한 곳이다. 이제는 더 이상 신성한 학원이 이런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히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다.

명재권 기자

취 재 낙 수

새터문제 재발 방지돼야

97년 3월 용인배움터 학생처는 새내기새로배움터(새터)에 대해 '등록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적다'며 교비지급 중단을 단행해 학생회와 심한 마찰을 벌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98년 3월, 다시 용인배움터 교무처는 새터 불허 방침을 일방적으로 학생측에 통보하며 교비지급을 거부했다. 이유는 학사일정이 진행되는 3월 초에 새터를 가게되면 교육부로부터 눈치를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당국의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채, 새터시작 전 날에야 '교비를 지급해줄테니 갔다와라'고 통보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총학생회는 그들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있다.

매년 계속되는 새터에 대한 대학당국의 논리. 자신의 잘못이 분명하여 마침내는 교비를 지급해야함에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학당국. '교육부 눈치보기 바쁜' 우리의 대학당국은 언제쯤 소신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승준 기자

복학생, 수강신청 난관

지난달 수강신청을 시작으로 학교당국의 본격적인 학사업무가 시작 되었다. 신학기가 되면 교무처는 바쁘게 움직이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빗발치는 문의 전화때문에 더하다. 바로 복학생들의 수강신청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군제대 후 이번학기 복학한 장태승(터어키 94)군은 "수강 신청할때 복학생들을 위한 수강대체과목에 대해 자세한 공고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며 불만을 털어 놓았다. 현재 교무처는 교양대체과목을 선정해 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교학과에서는 전공대체과목을 선정해 놓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복학생 등록기간이 수강신청기간 보다 먼저 일정이 잡혀야 함에도 현 학사일정은 그렇지 않아 수강신청을 못한 복학생들도 있다. 이런 대학당국의 대책없는 학사일정에 학생들은 다시 수강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갖는다. 이에 대해 대학당국은 각성하고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공고문을 붙여야 할 것이다.

이승준 기자

외국어연수원생모집

야간 10주 대학(원)생과정

모집과정 : 영어
교육기간 : 제34기 1998. 4. 13(월) ~ 6.19(금), 10주
대　　상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수업시간 : 월, 화, 목, 금(주 4일), 1일 2시간
(수업시간 : 17:20 ~ 19:20)
등록기간 : 1998. 3. 9(월) 부터 선착순 마감

야간 10주 일반인 과정

모집과정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노어, 불어, 서반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독일어 등 24개 외국어
교육기간 : 제34기 1998. 4. 13(월) ~ 6. 19(금), 10주
대　　상 : 일반일(만 18세 이상 자격제한 없음)
수업시간 : 월, 화, 목, 금(주 4일), 1일 2시간
등록기간 : 1998. 3. 9(월)부터 선착순 마감

※ 문의처 : 연수원 교학과 (☎961-4174/5, 962-7119, fax. 962-057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 국 어 연 수 원

추가등록기간 안내

1998학년도 제 1학기 재학생 추가등록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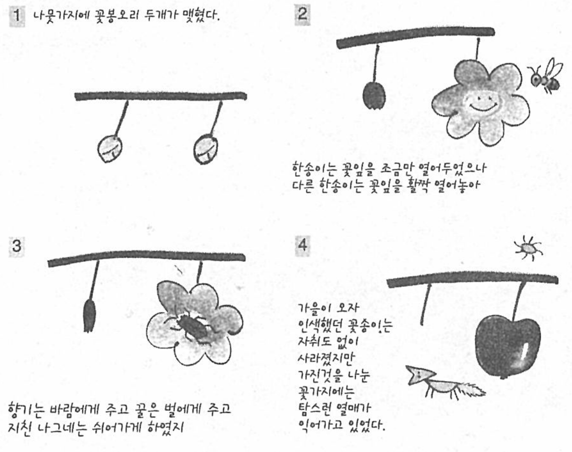
1. **등록기간** : 1998년 3월 9일(월)부터
1998년 3월 16일(월)까지
2. **등록장소** : 제일은행 본점 및 지점
국민은행 본점 및 지점
3. **등록금액** : 등록금 납부 통지서 참조
4. 장학금 수혜 학생은 장학증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 할 것. (등록금 납부 통지서에 장학금이 표시된 학생은 제외 - 차액만 납부)
5. 등록금 영수증은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 할 것. (본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 추후 등록기간은 없으며 등록기간 외에는 등록금을 수납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랑은 서울캠퍼스 경리과 또는 용인 캠퍼스 총무과에 문의 바람. (구내전화 4043, 4044)

1998. 3. 9

재 무 처 장



외대학보사에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외대학보사는 59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외대학보사는 학생회관 2층에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안전한 직업은 없다

유연화, '대량실업' 담보로한 위험한 도박

IMF로 한국사회는 바닥째 흔들리고 있다. 경제에서 정치, 사회 그리고 국민생활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일면서 고통스런 모습들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자리 문제는 유별나게 두드러져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일터에서 거리로 내몰려 방황하고 있고 아무런 동의없이 임금이 깍이는가 하면 노동시간이 기업의 방침에 따라 연장되고 노조활동은 억눌린다. 대학생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신입사원은 무급휴가로 발령대기상태에 머물러 있고 산업현장이 살벌해 지는가하면 생활형편마저 쪼들리고 있다. 이런 엄혹한 현실은 어디에서 부터 왔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편집자

<글싣는 순서>

1. **IMF시대, 고용현실과 고용구조변화**
2. 고용위기의 원인 ①세계자본의 신자유주의
3. 고용위기의 원인 ②한국자본주의와 IMF
4. 고용위기에 처한 사람들
5. 대안- ①산별노조, 일자리나누기
6. 대안- ②자립적 경제의 토대구축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

IMF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는 우리가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미증유의 시련을 한국경제에 가져다주고 있다. 급속한 성장둔화와 물가상승, 환율 및 금리의 폭등, 기업의 부도, 도산, 임금의 동결 및 삭감 등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성장률 저하와 산업구조 조정 및 기업 도산, 인원감축에 따른 대량실업의 우려는 앞으로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애초 IMF와 98년 성장률을 2.5%~3%선, 물가인상률을 5%내로 유지하기로 약속했으나 IMF구제금융이 실시된 후에도 외환사정 및 금융시장사정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98년 1월 다시 IMF와의 협의를 통해 98년 GDP성장률을 1~2%로,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9%로 수정발표했다. 이처럼 성장전망치가 하향수정됨에 따라 실업률 역시 애초의 3.9%로부터 5~6%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업자수는 15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실직을 하더라도 재취업 가능성이 적고 사회보장기능도 미약하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되는 이른바 실망실업자 효과가 커서(특히 여성, 노령자) 이들 실직자가 곧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무튼 종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 실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과 고용불안정 외에도 임금동결 및 삭감,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세금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의 증대 등이 예상되며 또 임금체계의- 개편, 퇴직금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부장제도의 개편, · 축소, 휴일 · 휴가 등 부가급부의 축소 등도 예상되어 노동자와 일반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것을 예상된다.

IMF의 정책처방과 그 한계

지난 해 12월 IMF는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의 대가로 가혹한 내용의 구조조정 조건을 담은 양해안을 내놓았으며 정부는 이를 거의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이 양해각서의 내용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 설정, 재정금융긴축정책 실시, 금융산업 구조조정, 무역 및 자본자유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광범하고도 엄격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IMF는 한국정부가 이 양해각서를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를 감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게 되므로 한국정부로서 이를 충실히 지키겠다고 IMF에 이미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IMF의 정책처방이 진정으로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IMF와 한국정부가 지난해 12월 3일 체결한 구제금융에 따른 양해각서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정치와 고용보험제도의 기능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정리해고에 대한 제한완화와 파견근로제 도입」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은 데이비드 립튼 재무차관을 통해 IMF와의 협약사항 중 노동정책에 대한 부분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유연성 제고, 인수합병(M&A)활성화를 위한 정리해고의 조기실시 뿐만 아니라 파업시 대체근로제 허용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는 IMF와 미국의 요구가 있기 전에 이미 정부와 기업에 의해 꾸준히 추진되어 온 과제이다.

그 동안 정부와 기업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앞으로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파견근로제의 도입, 계약직 근로의 활성화, 시간제 근로 및 재택근로의 활성화, 임금체계의 연성 제고, 퇴직금제도의 혜택 축소, 연월차휴가 축소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주장은 매우 일면적인 것이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론은 좁은 의미의 효율성에 지나치게 매몰된 논리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고용은 노동자가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수단이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빼앗는 행위이다. 실업은 비단 노동자 가족의 생계불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정신적 파탄, 이혼, 가출, 범죄, 자살 등 가정파괴를 가져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실증된.바 있다.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적인가

그렇다면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한국의 노동시장은 과연 경직적인가?

먼저 법적 제도적 요인을 살펴보면 정리해고제의 경우 이미 신노동법에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1999년 3월부터 발효예정이다. 신노동법상의 정리해고 조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법원의 판례에 따르게 되는데 최근 법원은 정리해고요건을 점차 완화시키고 있어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리해고제 도입이 유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법원판례에 의해 정리해고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부 보고에 따르면 97년 정리해고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직장을 떠난 동자수가 연말까지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10월 말까지 해고된 총 2만 3천명 가운데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수는 1만 76명이고 사업자 권유에 따른 반강제적인 퇴직자수는 1만 3천 7명에 달한다. 그동안 법원은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판례를 점차 완화시켜옴으로써 현재로서는 사실상 광범하게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리해고조항이 없어 정리해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정리해고 외에도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사실상 반강제적인 자발적 퇴직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11.5%가 명예퇴직제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부의 고용전망 조사에서도 고용조정 실시방법으로 '희망퇴직자 모집' 등 기업의 비율이 95년 1.3%로부터 97년 2.1%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 밖에도 권고사직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반강제적 퇴직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한라중공업의 대규모 해고사태는 그 전형적인 사례라 하겠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논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고용계약 1년 미만의 임시직 노동자의 확산이 급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임시직 노동자비율은 97년 2/4분기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45.5%에 달하고 있는 데 이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은 주부 등 보조적 노동자의 파트타임 노동에 의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구하는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정규직과 거의 노동시간이 같으면서 고용계약기간만 짧은 임시직 노동자에 의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의 가장인 핵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증적으로도 한국의 노동시장이 외국에 비해 경직적이라는 증거는 매우 미하다. 노동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용유연성 수치는 0.55로서 미국(0.67)이나 영국(0.71) 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타 OECD국가들의 중간정도에 속하고 특히 일본(0.46)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의 유연성 역시 OECD국가들 중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다만 근로시간의 유연성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이 장시간 노동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발휘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도 신노동법에서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으므로 앞으로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희박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보더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관악산의 실업자. 올해 실업자수는 15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업은 비단 노동자 가족의 생계 불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정신적 파탄, 이혼, 가출, 범죄, 자살등 가정 파괴를 가져와 심각한 사회문제도 야기시킨다.

시장적 유연화의 폐해

현재 IMF가 강요하고 정부와 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시장의 강제력에 의해 유연화를 달성하려는 이른바 '시장적 유연화' 일변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시장적 유연화'는 대량해고와 임시노동자의 대량도입, 임금의 최대한 삭감, 그리고 노동조합 기능의 최대한 약화 등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이윤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유리한 조건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축적조건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적 유연화'는 결국 대량실업과 대량빈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고용관계의 불안정화, 그리고 이에 따른 노사관계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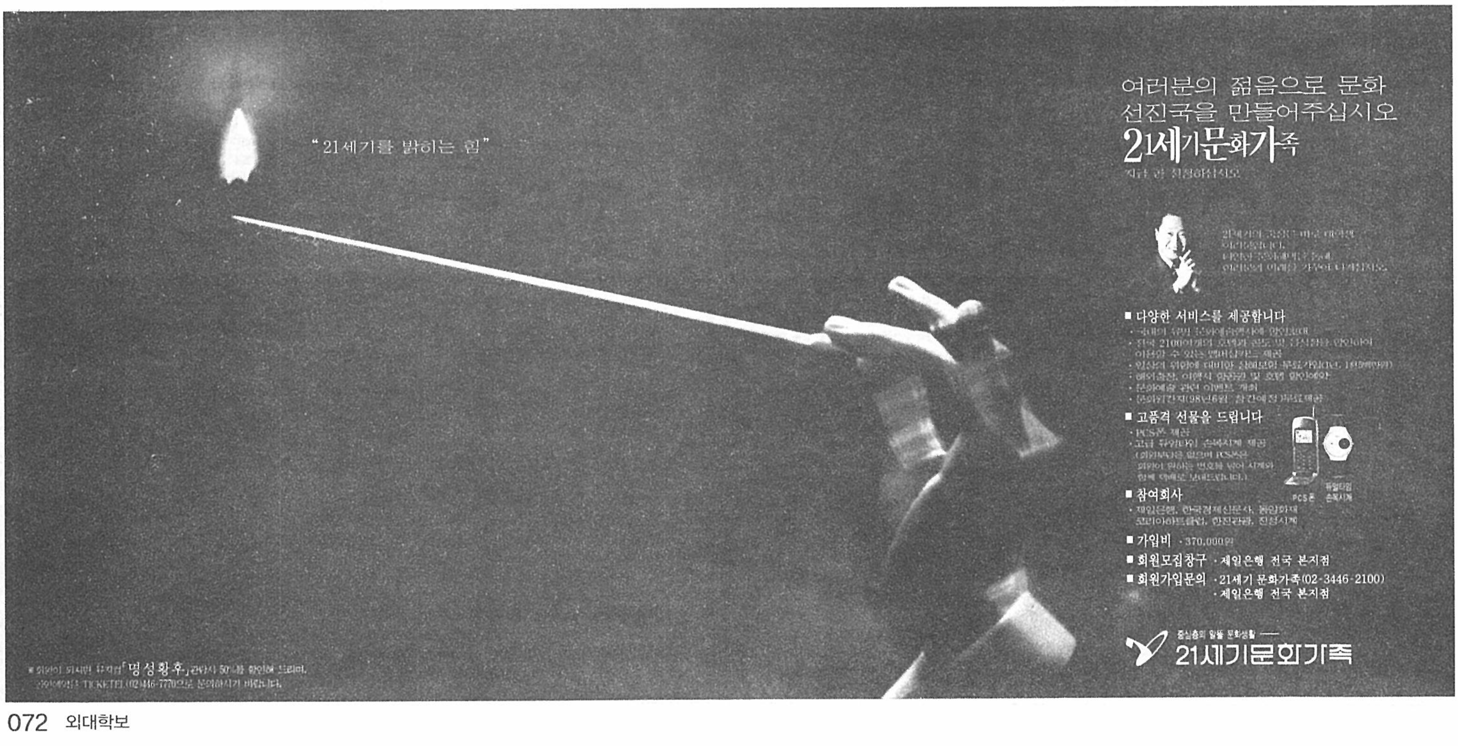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금융외환위기의 극복이라는 단기적 과제의 해결에만 급급하여 IMF와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친화적 정책이 가져올 장기적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는 심각하고 고통스런 불황의 지속, 대량실업, 실질임

금과 생활수준의 급격한 저하, 소득 분배 악화, 빈곤 심화, 노동조합 약화, 근로기준 악화 등을 가져오게 되며 이는 다시 실업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반발을 가져와 사회적 정치적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도 IMF의 요구나 국제투자가들의 신뢰도 회복 등만을 이유로 '시장적 유연화'를 강행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국가정책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사실 세계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의 정책이 한 나라의 고용수준과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도 지대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한 나라의 노동정책이 단지 국제금융자본의 요구나 국제경쟁력에 대한 고려에 의해서만 수립되고 집행되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임금삭감과 근로조건의 악화 및 대량혜고만을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윤 진 호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만나보기 –외국문학연구소장 박철 서반아어과 교수

"노벨 문학상 멀지 않았다"

우리학교 외국문학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선정하는 '98~99년 대학부설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문학연구소는 향후 9년간 연간 1억5천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연구소에서는 지원금을 바탕으로 '문학의 세계화 연구-노벨문학상 수상작가들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스웨덴 아카데미의 역사와 특징, 탈식민지 문학의 정전화, 서방세계에서의 슬라브 문학의 수용, 동양문학의 특수성과 국제성, 한국문학의 세계화 등 총 5부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외국문학연구소장인 서반아어과 박철교수를 만나보았다. 편집자

먼저 외국문학연구소는 어떤 단체인가

95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만 3년이 되었다. 외국문학에 있어 그동안 외대교수가 개인적으로 연구해 오던 것을 집단적으로 모아보자는 의미에서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외국어학부의 150여명의 교수가 외국문학과 한국문학의 번역과 동향등의 주제에 대해 소모임별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1년에 4번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논문집, 단행본 출간도 하고 있다.

대학부설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전국의 대학부설연구소 중에서 중심이 되는 100여개 연구소를 지정해 길게는 9년동안 매년 1억5천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외국문학연구소는 '문학의 세계화 과정연구-노벨문학상 수상작가들을 중심으로'라는 연구주제를 잡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그 주제를 보고 우리를 중점연구소로 지정했다.

이번 선정이 우리대학에 미치는 영향은.

어문학을 연구하는 우리대학에서 외국문학연구소가 중점연구소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외국문학이 그만큼 우리 대학의 특성으로 인정받았다는 말이다.

.덧붙여 이번 연구가 그동안 침체된 학술풍토를 활성화시켜 대학이 진정한 학문의 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의 세계화 과정을 연구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작년에 '세계문학에서 소설의 발전과정'을 주제로 중점연구소 신청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주제가 너무 일반적이고 현실 감각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소에서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잡자는 합의를 바탕으로 노벨문학상이라는 연구과제를 도출해 내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 자리잡고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벨문학상 작가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문학이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문학성이 심오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문학에 대한 번역과 보급에도 힘을 써야 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와 역사적 배경이 비슷한 나라의 작품을 분석해 노벨상 수상의 원인을 밝혀내어 우리 문학의 세계화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이다.

평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 한국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해야 할 것이다

임승회 기자

이 책 — 특권층의 범죄, 세계화

실업자 150만명의 시대.

IMF시대, 물가는 폭등하고 하루 백개가 넘는 기업이 쓰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내몰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3년 후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믿음만으로 이 엄혹한 생존현실을 한숨만 쉬며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과연 몇 년 안에 타개될 수 있을까?

독일 시사잡지 '슈피겔'의 두 기자가 쓴 '세계화의 덫'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세계화'의 망령이다.

세계화는 첨단기술을 통한 통신망의 발전, 저렴한 운송비용, 국경없는 자유무역이 만들어내는 세계단일시장을 꿈꾼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 기업가들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조직축소와 인원감축을 단행한다. 그 결과로 수백만명의 직장인들이 거리로 내몰리지만 그들은 세계화야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이 책의 분석에 따르면 결국 세계화 과정에서 나머지 국민들의 희생하에 세계적으로 증대된 부를 획득하는 사람들은 전세계적으로 20%를 차지하는 모든 특권층, 즉 자본가, 부자, 고급의 전문인력들이다. 나머지 대다수 80%의 사람들은 실업상태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싸구려 음식, 그리고 매스컴에서 뿜어대는 상업적 대중문화 속에서 입다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세계화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이 책에서 제시한 유렵식 대안은 대외종속적 경제구조와 정경유착의 폐해가 큰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적합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존의 위기가 피부로 확연하게 느껴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책은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광고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 얼마나 큰 범죄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세계경영, 다음세대와의 약속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 XX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김대중 정권의 과제와 전망

경제문제, 정치기반 구축의 관건

김대중 정권 출범과 IMF한파등으로 형성된 새로운 질서속에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지난달 7일 (토) 학술단체 협의회가 주최한 '김대중 정권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토론회의 발제문을 3회에 걸쳐 발췌 요약해 싣는다.

<글 싣는 순서>

1.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과제와 전망/ 정대화(상지대 교수, 정치학)**
2. 김대중정권의 경제적 과제와 전망/ 장상환(경상대 교수, 경제학)
3. 경제위기속의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정치사회학)

김대중정부의 의미와 성격

해방 이후 최초로 선거를 통해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한국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물론 승리한 지역연합의 세력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인 세력도 아니고, 민주적인 야당의 독자적인 집권도 아닌 것은 명백한 한계라 할 수 있지만, 현존하는 지배세력과 집권여당에 대항해서 승리를 이루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현 시점에서 정형화된 절차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이 정치활동을 근원적으로 억압하는 상황에서 지배세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명명된 이른바 '반체제세력'에게는 아무런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관점을 바꾸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정치적 활성화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국회와 정당의 기능은 아직도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조직의 최고형태로 불리는 정당은 변함없이 지도자 개인에 의해 사당화되어 있으며, 정당의 국민적 토대는 지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착근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반정치적 기능,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제약, 국회와 정당의 전근대성이라는 요소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도'의 문제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치적 과제: 권력기반 구축과 개혁

정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권력기반의 요소는 ①국제적 기반 ②정치적 기반 ③사회적 기반 ④경제적 기반의 네가지 순수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추상적 수준에서 사회적 기반은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새정부의 경우 국민적 다수가 참여하는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세력이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 선거에서의 승리가 지배세력의 분열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권력의 기반이 지역주의적이라는 점 등이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적 기반을 취약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정치적 기반은 사회적 기반에 비해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국제적 상황은 그다지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는 변수지만, 경제적 상황이 위기국면이라는 것이 새정부에게는 예상밖의 난관이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변수는 새정부에게 심각한 위기인 동시에 이 이상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책임이 구정권과 재벌집단에게 부과된 상황인 만큼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지배세력을 제압함으로써 구조적 수준에서 불리한 사회적 관계를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면서 권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경제변수와 정치변수의 해결이 권력기반 구축의 관건적 요소이다. 따라서 김대중정부로서는 경제상황을 배경으로 재벌을 통제하고, 여기서 획득되는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②, 즉 국민적 지지를 발판으로 경제위기③를 해결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민주정부로 가기위한 정치적 기반①을 획득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개혁은 권력기반 구축의 형태와 성격을 전제로하는 문제이며, 그 결과 민주적 개혁, 중도자유주의적 개혁, 양자의 절충이라는 세가지 방향을 가질 수 있다. 김대중정부의 상황은 결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재벌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이에 저항할 재벌집단의 방어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점이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과의 역사적 타협을 기초로 하고 당선자의 '준비된 정책'을 지렛대로 한다면 재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김영삼정부가 이룬 정치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개혁 등 실질적인 민주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재구조화의 방향과 성격

김대중 정부의 권력기반 구축작업과 개혁은 권력이 당면한 장벽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장벽은 IMF장벽(경제위기), 기득권장벽(기득권세력의 저항 가능성), 의회장벽(소수당정부), 지역주의 장벽(지역주의 부각 가능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 선거 이후 15개 국회는 대립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정당과 정당체계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각의 정당이 응집력있는 단일한 이념과 노선에 의해서 결집된 것이 아니라 보스를 중심으로 지역적, 인적으로 편재된 전근대적 연결망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 내부에 개혁, 보수, 수구세력이 동거하는 특수한 상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체계의 측면에서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정치적 대립구도의 성격이 현저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지역대결구도와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가 약화되면서 그 공백을 이념적 대결구도 혹은 계급계층적 대결구도가 메우게 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리 이지연 기자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

센스와 접촉하는 순간,
캠퍼스 경쟁력이 높아진다!– 삼성센스

빠른 처리속도의 고성능 센스는 대학생활의 필수품–
자료검색에서 리포트 작성은 물론 통신기능까지
데스크탑급의 성능을 완벽하게 갖춘 삼성센스로
한차원 높은 캠퍼스 경쟁력을 키우십시오.

삼성센스아카데미(S600-A1)
■150MHz MMX펜티엄칩 ■12.1" TFT대화면 ■20배속 CD롬
■33,600bps 팩스모뎀 ■2.1GB HDD ■16MB RAM ■2MB VRAM

센스아카데미 특별전시판매
• 기 간: 2월 23일-3월 20일
• 장 소: 대학원 1층로비
• 문의처: 744-2081
■구입조건: 3회무이자 할부판매 (계약금포함)

• 노트북 사용대학생 3명중 2명은 삼성센스를 쓰고 있습니다.

빠른것이 경쟁력
삼성 센스
또 하나의 가족
SAMSUNG 삼성전자

IMF 시기를 맞아 방학을 저렴하게 보내기위해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몰려들었다. 사진은 도서관에서 '경제 ' 관련 기사를 보는 학생의 모습이다

방중 도서관에서 IMF 나기

"아낄려다보니 이렇게 됐다"

신경제공식… 밥값 절약=학생 식당 취직 공부=고시 공부

듣기만 해도 지겨운 IMF. 하지만 이젠 우리의 생활이 되어 버렸다.

방학동안 여행도, 어학연수도 포기하고 도서관으로 모여들었던 '도서관파'(?) 학생들. 그들의 생활을 통해 IMF시대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본다.

화학과 92학번 박대섭군. 그는 학교식당에 가서도 천원짜리 면 종류만 먹고 공짜로 밥을 추가해 배를 채우는 식사를 한다. 차비를 아끼기 위해 제기동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데이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도서관을 다니는 알짜배기 '도서관 C·C(캠퍼스커플)파' 학생이다. "모범이라구요? 하하… 돈이 없으니까 아낄려다 보니 이런 생활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경제적 상황이 박대섭군을 알뜰학우로 만들었다면 다른 학우들의 생활은 어떨까.

가장 직접적 사안인 식사 얘기를 들어 보자. "5시쯤이면 학생들이 떼지어 몰려가요. 저녁 먹으러 경희대 식당으로 가는 거죠" 체코어과 91학번 주창석군의 말이다. 그는 밖에서 먹자니 비싸고, 우리학교 식당은 아침·저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경희대로 간다고 했다. 주군처럼 대부분의 도서관 학생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학생식당을 이용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씀씀이를 줄이려는 작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이는 비단 식사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배구 게임이 한창인 TV소리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함이 어우러진 5층 휴게실에서 만난 2명의 남학우는 주변의 어수선함에 지지 않으려는 듯 소리를 높여가며 말한다.

"예전에는 2명이서도 당구치러 가곤 했는데 지금은 6명이 모여야 치러 가요"

"비싼 술집에 가는 대신 친구 자취집에서 깡소주 마시며 노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들은 정말 억울한 듯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여가에 대해 이야기 했다.

4층으로 내려와 만난 한 여학우는 심지어 "삐삐 확인 때문에 공중전화를 자주 쓰는 것도 꺼려진다"고 했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학생들의 생활을 위축시킴을 나타내는 단편적인 예이다.

IMF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위축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 불안함을 가중시킨다. 사상 최대의 실업대란이 그것이다.

"도서관에서 매일 보던 학생이 졸업식장에 와 있는 걸 봤어요. 기분이 착잡하더라구요" 마인어과 92학번 이훈성군은 졸업생임에도 취업이 되지않아 매일 도서관에 나와있어야 했던 예비 실업자의 현실에 가슴이 답답했다고 한다. 대학원 졸업생,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도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공부가 곧 취직공부"라는 말은 도서관 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당연한 사실이 되어 있었다. "예전처럼 취직공부 같은거 안해요. 대신 고시공부하는 학생들이 엄청 늘어났죠" 중국어과 94학번 김용철군의 말이다. 1학년 2학기때 고시공부를 시작했다는 서어과 96학번의 한 여학생은 고시공부를 너무 일찍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요즘은 저보다 고시공부를 더 빨리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라고 대답한다.

고시열풍만큼 두드러지는 현상중의 하나가 유학포기 현상인데, 철학과 94학번의 한 여학우는 미국에서 영문학 석사과정을 마치기 위해 유학을 갈 예정이었지만 환율이 워낙 많이 올라 못가고 있는 형편이라며 사정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서관 학우들에게 IMF는 경제적 문제나 취업, 공부 등 여러면에서 걸림돌임이 분명했다.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그들에게는 새학기에 대한 희망보다는 IMF의 힘겨움이 더 많이 남아있는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괜한 기우일까.

김겸신 기자

너비아니는 '불고기'의 옛말입니다

너비아니

<9>네덜란드인의 식습관과 음식문화 I

살기 위해 먹는다

화훼산업 하나로 매년 10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나라. 치즈로 유명한 세계적인 낙농제품수출국. 네덜란드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네덜란드를 농업국가로 인식케 하고 대개의 농업국가들이 그러하듯 네덜란드의 음식문화가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으리라 짐작케 한다.

과연 실제로 그러한가? 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인 것일 것이다. 평균적으로 볼 때 그 소박함은 괄목할만하다. 음식문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면 등장하고 하는 '모방' '평등' '확산' 이론이 네덜란드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겠으니 그 정도는 미미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지리, 정치,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바다보다 낮은 저지대로 형성된 국토는 농업의 발전을 저해했고 이는 국토 전역을 관통하고 있는 라인, 뫼, 스헬트 강 같은 국제천의 존재와 더불어 네덜란드의 산업구조를 1차 산업에서 2차,3차 산업분야로 전이케 해 음식문화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농작물의 경작이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는 대개 한 국가의 음식문화를 선도해나가는 절대왕조나 대귀족층이 네덜란드에는 없었으며 나아가 근검절약을 모토로 네덜란드인들의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칼뱅교의 존재도 네덜란드에는 고유한 음식문화가 존재하는데 북해와 대서양을 끼고 일찍이 발달한 어업을 토대로 한 다양한 생선요리와 육류 요리 및 동부 농업지역에서 산출되는 곡류와 구근류를 가지고 만든 다양한 빵, 국, 죽 등이 그것이며 특히 색기청어를 식초에 절인 양파와 함께 날로 먹는 하링, 가지미튀김,붕장어찜, 버터와 마늘대를 썰어 넣고 만든 홍합찜, 대구튀김요리 등 생선요리와 카르보나드(돼지갈비), 삶은 시금치, 으깬 감자와 먹는 찐 소시지, 간 고기에 향료를 넣고 완자형태로 기름에 튀긴 올리볼 등이 유명한 일상음식들이다. 이렇듯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음식들은 인접국가들의 다양한 음식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평범하다는 인상을 준다.

현대 네덜란드인들의 평균적인 아침식단은 빵 및 조각, 버터, 치즈, 잼, 우유, 커피로 구성되며 점심에는 햄과 과일 정도가 더해질 뿐 아침과 큰 차이가 없다. 저녁은 수프와 감자를 곁들은 육류 혹은 생선요리, 과일, 요구르트 같은 후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단은 네덜란드인들의 음식문화관-먹기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네덜란드인들은 왜 이런 음식문화관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이제 역사속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장 봉 익
〈네덜란드어과 교수〉

만나보기 - 칼럼 '우리말 살려쓰기'의 최종규군

"외국어 공부의 중심은 우리말을 잘 아는 것이다"

우리학교 네덜란드어과 93학번 최종규군. 그는 우리말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우리말에 관한 소책자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컴퓨터 통신에서 우리말 모임과 헌책방 모임을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대에 있을 때는 20권의 소책자를 발행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본지의 '우리말 살려쓰기' 필자이기도 한 최종규씨를 통해 우리말에 관한 그의 여러 생각과 책자 발행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우리말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나.

외국어가 전공이기 때문에 번역에 관심이 많았고 그 분야의 책을 읽다 보니 번역에 있어서 우리말을 잘 아는 것이 중심임을 깨닫게 됐다. 그때가 대학 1학년때 였다.

우리말의 70%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 순한글쓰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한문 혼용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한자를 굳이 써야 할까? 한자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동음이의어 문제인데, 동음이의어 현상은 어느말에나 다 존재한다. 예를 들어보면 'PLAY'라는 단어만 봐도 많은 뜻이 있다. 연극,놀다 등. 이런 말은 문맥을 통해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단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맥속에서 충분히 풀어주려는 노력의 선행이 중요하다.

군대에서도 20여권의 책자를 발행한걸로 아는데.

따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잘 시간이나 주말시간, 휴식시간 등을 짬짬이 이용했다. 그렇게 중대에서 만들어진 책자 복사를 외박이나 휴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했다. 복사한 책자를 우편으로 보내줬는데 군대로 들어오는 우편물은 검열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얘기들을 담아 낼 수 없어 한편으론 답답했다.

유행어나 컴퓨터 통신에서 쓰이는 말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좋은 점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 예로 '썰렁하다'는 유행어를 살펴보자. 이 말을 처음 들었을때는 뜻도 안 맞는 틀린말이라 생각했는데 어떤 말이 재미없을 때 분위기가 굳는 것을 보고 '썰렁하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창의적이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사고의 폭을 넓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컴퓨터 통신의 경우는 아쉬운 점이 많다. 처음에 '시삽'이라는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나중에 SYSTEM OPERATOR에서 SYSOP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을 안 후 어이가 없었다. '모임지기'라는 우리말을 써도 충분히 가능할텐데.

혼자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 무척 힘들텐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좋아서 만들기 때문에 계속 할 생각이고 출판사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일간신문 만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작업은 시작했고,민중가요의 잘못된 가사를 바로잡는 일도 하고싶다. 내 작은 책자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소망이다.

김겸신 기자

생활시평

건설없는 비판, 이제 그만!

또였다.

이맘때만 되면 어김없이 신문지면을 장식하던 이야기들이 올해도 되풀이 된다.

'신입생 환영회 음주사망과 관련된 선배에게 과실치사죄 적용, 유죄선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96년 3월에 있은 충남대 신입생환영회 음주사망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연세대 신입생이 지나친 과음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학교의 한 학생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굴러 골반탈골 등 중상을 입었다. 대학음주문화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거세다. 물론 언제나 선봉은 언론이다.

'집단폭력에 속할 이런 비이성적 형태의 온존이 우리 대학문화의 서글픈 현주소임을 입증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대학운동권에 과음강요가 상습화됐다' '마치 비밀결사의 조직원으로서 치르는 통과의례 같다' 등의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다. 이번 기회에 대학에서 행사때마다 마련되는 술자리의 의식들을 마치 운동권들이 주도하는 행사로 몰아세울 모양이다. 그들의 목소리에선 술자리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악습으로 범벅이 된 술자리의 모습만 보인다.

우리학교에서도 새내기들은 O·T와 새터를 거치며 몇번의 술자리를 치뤄(?) 내었고, 지금도 한참 신입생 환영회다 개강파티다 해서 술자리가 많은 시기다. 얼굴 모르는 선·후배가 함께 모여 한 잔 술을 마시며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 지식을 가르쳐주고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자리는 필요하다. 선후배간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차이가 좁혀지고 단결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언론에서 지적하는 '신고식'의 문제점은 분명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언제부턴가 술이 목적이 되버린 우리의 술자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술자리를 송두리채 '악습'으로 싸잡아 매서 비판하는 언론의 태도는 분명 편협하다.

문화부

문 화 옹 달 샘

새 책

98새내기 정보탱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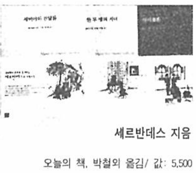
한겨레 신문사/값 12,000

한겨레 대학문화 기획팀 지음

대학생활을 통해 평생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기에 대학생활은 정말 중요하다. 이 중요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 드는 새내기들은 이 책을 펼쳐 보아라. 한겨레 대학문화기획팀이 기획한 책으로 총 10장으로 구성 되어있다.

대학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대학문화와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 대학공부에 필요한 도서관과 스터디 그룹, 공강시간 활용법 같은 사항, 게다가 리포트 잘 쓰는 법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시절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사랑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탤런트 이민우(중앙대·연극과3)군과 주혜나(덕성여대·심리학과 2)양의 실전미팅을 통해서 풀어준다. 게다가 민주화에 몸바친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와 요즘 뜨는 동아리 총집합 코너와 학교앞 유명 상점에 대한 소개등 대학생으로 살아가기에 알면 좋은데 모르면 후회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남장을 한 두 명의 처녀 이외 2권



세르반데스 지음

오늘의 책, 박철외 옮김/ 값: 5,500

이전에 소개한 적 있는 세르반테스의 '모범소설'이 이번에 모두 완결되었다. '사기결혼' '남장을 한 두명의 처녀' '세비야의 건달들' 총 3권이 선보이는데 수록된 소설은 각각 2편씩 모두 6편으로 '개들이 본세상' '영국에서 돌아온 여인' '관대한 여인'을 같이 볼 수 있다.

모범소설은 돈키호테가 아닌 세르반테스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남장을 한 두 명의 처녀'에서는 그의 진보적인 여성관을, '관대한 연인'은 사랑에 대한 자유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사기결혼'과 '개들이 본 세상'은 실제의 이야기일 수 있을 수도 허구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환멸'로 통하는 이야기이다. 당시 바로크 시대의 사회상을 전형적으로 형상화한 뛰어난 작품이다.

공 연

꽃다지 '봄' 공연

희망의 노래 '꽃다지'가 오는 10일(화)부터 15일(일)까지 6일간 동숭아트홀에서 봄공연을 개최한다. IMF 구제금융시대, 120만명의 실업자가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꽃다지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그림자춤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선 보이는 것이 이번 공연의 특징이다.

공연에서는 '고개 숙인 남자'(윤미진 글,곡) '장미빛 인생'(이찬욱 글,곡) '참된 시작'(김신기 글, 선경희 곡)등 민중음악의 신세대 작곡자들의 신곡이 선보이는 자리도 될 것이다.

공연문의: 845-5808, 관람비: 2 만원

인터넷 따라잡기

인터넷의 기원과 교내 랜 소개

Internet이란 Internetworking의 약자로 네트워크들간의 상호연결이다.

인터넷의 기원은 1969년 미국 국방성의 프로젝트인 Arpanet이다. 이후 TCP/IP를 근간으로 한 NSFNET로 흡수 변형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BITNET, Usenet 등이 생겨났고, 90년대 중반에 www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되면서 인터넷은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는 모든 네트워크가 결합된 집합체가 되었다. 외대에는 LAN(Local Area Network)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랜이란 지역적으로 1km이내의 컴퓨터 시스템간에 데이터 통상의 터미널이나 컴퓨터 간의 연결에 이용됩니다. 현재 학교의 랜 설비는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전송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의 속도는 33.6kbps 모뎀보다 최대 1만 9천배가량 빠릅니다. 이제 초고속 인터넷을 학교에서 즐겨봅시다.

컴퓨터동아리 돌컴

우리말 살려쓰기

〈11〉 글장님 ← 문맹

장님을 '맹인'이라고 부른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글월 '문'을 써서 '문맹'이라 한다. 그런데 '장님' 생각을 하면 '문맹'보다 더 가깝거나 아름다운 우리말을 쓸 수 있다.

글장님 : 글 + 장님 (글을 읽거나 마주할 땐 장님과 같다)

글을 읽을 때는 장님이라는 말은 '글을 읽지 못함'을 이야기 한다. '글장님'을 뜻있는 분들께서 이미 써 오거나 널리 펼치려 애를 쓰는 말이나 아직까지는 그리 널리 퍼지지 못했다. '글장님'도 사전에 올려서 쓰면 좋지 않을까?

'어떠한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어떠한 사물이나 일을 가리키는 말)+(장님)이라 쓰면 된다.

셈틀장님 ←컴맹
빛(깔)장님 ←색맹
길장님 ← 길 눈이 어두운 사람

최종규 (서양 · 네덜란드어 93)

구분 / 요일	A식단 1배식구	B식단 2배식구	C식단/석식 3배식구
월(9일)	김치콩나물국 (₩1,400)	시금치국 (₩1,400)	카레라이스 (₩1,500)
화(10일)	호박고추장찌게 (₩1,400)	무다시마국 (₩1,400)	모듬휘시커틀릿 (₩1,500)
수(11일)	달갈야채국 (₩1,400)	두부된장국 (₩1,400)	회덮밥 (₩1,500)
목(12일)	우거지된장국 (₩1,400)	감자미역국 (₩1,400)	김치떡볶음덮밥 (₩1,500)
금(13일)	쇠고기무국 (₩1,400)	콩나물국 (₩1,400)	모듬미트볼정식 (₩2,000)

* 서울식단은 사정상 싣지 못하니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구분 / 요일	조 식	중식 II	석식
월(29일)	부추잡채덮밥 (₩1,400)	카레돈가스 (₩2,000)	근대국 백반 (₩1,400)
화(18일)	김치떡전골 (₩1,400)	산채비빔밥 (₩1,800)	꽁치구이백반 (₩1,400)
수(19일)	해물짜장밥 (₩1,400)	갈비탕 (₩1,800)	부대찌개 (₩1,400)
목(20일)	제육볶음덮밥 (₩1,400)	스파게티 정식 (₩2,000)	물오징어찌개 (₩1,400)
금(21일)	김치볶음밥 (₩1,400)	새우커틀렛 (₩2,000)	삼대탕 (₩1,400)

〈제공: 총무처 후생과 · 생활협동조합〉

문화제국주의는 있다.

왜 다시 '문화제국주의' 인가

민족문화의 정체성 파괴와 종속성 심화

왜 문화제국주의 · 식민주의인가?

새삼스럽게 또다시 '제국주의'라는 말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가. 과연 제국주의는 현재 존재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다. 냉전이후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은 끝났다는 어느 학자의 발언에서 출발한 '역사는 끝났다'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고, 이제 세계는 하나의 통일된 이념과 사상으로 이룩될 것이라는 '전지구화'라는 개념이 오늘날 한국에서는 '세계화'라는 말로 전용되며 민중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IMF라는 무기를 앞세워 그들의 정책은 좀 더 합법화, 노골화 되고 있다. 거기다 UIP직배 10년, 일본문화개방 원년의 해를 맞아 그 노골화 만큼이나 학우들이 느끼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빈도 또한 많아질 것이다.

이에 외대학보 문화부 에서는 문화접촉이 가지고 있는 '실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편집자

영화의 위력은 막강하다. 세계를 대표해 싸우는 미국의 대통령을 보며 주변국의 국민들은 미국을 숭배한다. 사진은 영화 '인디펜던스테이'의 한 장면

I. 정체성의 파괴와 종속

90년대 말 우리의 문화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외국인들의 눈에도 숨김없이 드러난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지는 97년 5월 22일자 여행 특집난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국인은 스스로 따뜻한 성품을 지닌 민족,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민족, 미래 세계의 모범이 될 문화 민족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눈에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거칠고 낭비적이며 피상적인 자기중심성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비친다. ... 명동 성당 앞에는 일본식 커피숍과 호프집, 미국식 패스트푸드점이 널려 있으며 거리에는 한국식 팝 음악이 흘러나올 만큼 유사성없는 여러 문화들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다. 가슴에 성조기를 달고 머리를 노오랗게 물들이고 거리를 활보하는 청소년들, 온통 미국에서 직수입된 폭력물과 음란물들로 넘쳐 나는 서울의 영화관과 비디오 가게들, 한국의 문화라고 해보았자 기껏 미국과 일본의 저질 대중 문화의 조잡한 모방과 천박한 표절에 불과할 따름이다" 외국 언론의 이러한 평가는 문화민족의 일원으로 자처해 온 우리 모두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그러나 사태를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너절한 모습이 90년대 우리 문화의 현주소임을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문화적 종속은 비단 대중 문화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인문학의 상황은 어떤가? 최근 서구 '석학'들의 내왕이 잦아지고 있는데, 96년 말에는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Habermas)가 방한한 적이 있었다. 당시 한국 철학계의 권위자들은 미주알 고주알,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가장 정통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자라도 배우겠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국내 '석학'들의 태도는 "마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숙제 검사를 받는 초등학생 같았다"라고 어느 소장학자는 자괴어린 독백을 서슴치 않았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하버마스 자신도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교, 불교 등 풍부한 문화적 이론적 전통을 지닌 한국이 왜 그토록 서구 이론에 집착하는가"라며 한국 인문학계의 고질적이며 맹목적인 종속성을 개탄했다고 한다(중앙일보 97년 12월 11일자 참조)

> 유교, 불교등 풍부한 문화적, 이론적 전통을 지닌 한국이 왜 그토록 서구이론에 집착하는가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화적 정체성 파괴와 종속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상황마저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문화적 주도권을 장악한 이들의 눈을 통해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50-60년대 북미의 인디언 후손들은 백인 기병대가 자신의 선조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영화 장면을 보며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영화관에서도 되풀이되었다. 한국을 처음으로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가운데는 서울의 거리, 심지어 대학가에서조차 '동양계 남녀 미군'들이 붐비는 이유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II. 서구 지배의 모순

국가적 또는 전지구적 차원을 막론하고 지배 집단은 문화적 주도권(헤게모니)을 장악해 자신들의 의도를 피지배 집단들에게 관철하고자 한다. 지배 구조는 물리적 폭력이나 강제력에만 의존하는 한 결코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 지배 집단은 지배의 재생산 구조를 갖추기 위해 피지배 집단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한편 종교 및 교육 기관을 비롯한 문화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른 한편 도덕, 윤리, 철학, 예술 등 각종 관념적 이데올로기들을 선전 유포함으로써 확보된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유교와 같은 '세계종교'들이 수천년 동안이나 국가 종교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 종교들은 한편 지배 집단의 기득권 유지에 적합한 윤리나 사상을 개 개인들에게 내면화함으로써, 다른 한편 기층 민중들이 지니고 있는 저항의 이데올로기들을 잠재우고 왜곡 변형시킴으로써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15-16세기 이후 전세계를 장악한 서구 식민주의나 제국주의의 군사적, 경제적 정복에는 항상 문화적 정복이 뒤따랐다. 사제와 선교사들은 죄인을 구원한다는 구실 아래 식민지 원주민들의 언어, 종교 및 관습을 비롯한 고유 문화들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파괴하면서 서구 기독교 문화를 이식해 나갔다. 저항하는 원주민들은 악마로 낙인찍혀 참혹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또한 서구 기독교는 정복자들이 식민지에서 자행한 약탈과 만행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부추기기까지 했다. 당시 교황과 신학자들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과연 인간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한편의 사제들은 인디언들을 인간과 짐승의 중간 단계의 존재로 간주했고, 다른 한편의 사제들은 이들 또한 인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디언에 대한 인간학적 정의가 어떻든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인디언들은 '아무런 영혼의 활동도 하지 않는' - 인간이 아닌 - 존재였기 때문에, 또는 인간으로 인정되더라도 저급한 단계의 인간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백인들의 잔혹한 착취와 만행이 정당화 될 수 있었다.

또한 15세기 중남미 식민지에서는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근대적 유학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유력한 지도층 원주민의 자제들을 식민지 모국으로 데려다가 철저한 문화적 동화(同化)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관리나 지식인, 신부 또는 선교사로 식민지로 돌아와 정복자들의 충실한 주구(走狗) 노릇을 수행했다. 당시 식민지에 최초로 설립된 대학들은 원주민 귀족 자제들에게 정복자들의 신학과 철학을 전수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이들을 서구 문화에 동화시켜 나갔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 하는 신학적 철학적 사상들은 이후 계몽주의 사상가들(이들 대부분은 당시까지도 유럽에 만연되어 있던 마녀사냥에 대해 침묵을 지키거나 심지어 적극 동조하기까지 했다)에게도 이어졌다. 볼테르, 베이컨, 흄 등 근대 영국의 철학자들은 신세계의 '퇴화한 인간'들을 서구인과 같은 인류로 보기를 거부했다. 헤겔은 원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무능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유럽으로부터의 단 한차례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사멸했다고 그의 '역사철학강의'에서 자랑스럽게 서술했다. 비서구 세계에 대한 근대 서구인들의 오만한 사고 방식에는 그들의 역사철학과 인간학적 편견이 깔려 있다. 서구인들은 서구의 역사를 자유와 역동적 발전으로 미화한 반면, 비서구 세계의 역사를 오리엔탈리즘, 다시 말해 정체성과 전제군주를 통해 규정지었다. 나아가 비서구 세계 원주민들에 대해 정상-비정상의 엄격한 이분법의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인종차별을 정당화했다. 과연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인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근대 서구적 의미에서 '보편적' 인격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했다.

근대 서구철학의 인간학적 보편성은 인간에 대한 등급화와 강제성을 담고 있다. 더욱이 근대 서구적 미(美)의 기준도 인류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인간의 인종별 위계화가 정당화된다. 서구 백인 아래 황인종, 흑인종 그리고 유인원이 존재론적 서열을 이룬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훗날 사회다윈주의나 나찌즘과 결합하면서 타 민족이나 인종 그리고 문화권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과 파괴로 이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전쟁 당시 미군들은 우리 민족을 서슴없이 '들쥐떼'로 불렀던 것이다.

III. 문화제국주의의 은폐성

오늘날 문화 제국주의는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과거 서구의 문화 제국주의가 세계적 지배를 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노골적이며 폭력적인 성격을 띠었다면, 오늘날의 문화 제국주의는 간접적이며 은폐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19세기 서유럽의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는 강력한 도덕적 정당성과 문화적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자신들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제도와 가치관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며 인간적인 것으로 자부해마지 않았다. 심지어 맑스 조차도 서구 부르주아의 식민주의가 아무리 파괴적일지라도 그것은 오랜 기간 정체된 오리엔트(동양)의 역사를 역동적인 진보의 역사로 바꾸는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해마지 않았다.

문화정책이 없는 나라가 '문화의 세기'를 맞고자 한다. 현상태가 유지된다면 우리의 2000년은 '문화종속의 세기'가 될지도 모른다. 사진은 문화관광부에 걸린 전광판.

그러나 20세기 서구의 역사는 두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인간적인 파괴와 대량 학살로 어어졌으며 또한 제3세계의 격렬한 저항과 도전으로 서구 제국주의와 더불어 문화 제국주의 시대도 역사적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서구인들의 문화적 자신감 상실로 이어졌다. 그 누구도 서구적 문화와 가치관을 인류의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서구중심적 세계관 더 이상 자신있게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미소간 냉전이 격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패권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미국은 동구권 사회주의와 제3세계 민족해방 전선에 맞설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전략을 필요로 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반공주의와 경제성장 그리고 영미식 대의제 민주주의로 표현되었으며 문화적으로는 - 보수적 기독교와 더불어 - 헐리우드로 대변되는 문화 산업과 과학기술적 유토피아, 다시 말해 '어메리칸 드림'으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50-60년대 이후 3S 문화가 기존 노동자들의 계급 문화를 파괴하면서 대중문화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데, 2차대전 이후 섹스, 스크린, 스포츠로 상징되는 3S 문화의 광범한 파급은 자본주의 지배 블록의 이해 관계와 밀접히 맞물려 있었다. 자본주의 지배 집단(블럭)들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분배에 국가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만을 완화하는 한편, 3S를 통해 프로레타리아트의 문화적 기반을 조직적으로 파괴해 나감으로써 문화적 주도권 장악에 성공했다.

70년대 서구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사회주의 혁명운동, 나아가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퇴조와 좌절은 노동자 계급의 문화적 주도권 상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마르쿠제(H.Marcuse)는 노동계급의 보수 반동화를 진단하면서 산업사회의 대중을 '일차원적 인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일차원적 인간이란 자본주의 소비사회에 길들여지고 3S 문화에 중독된 정치적으로 철저히 무비판적이며 무의식화된, 글자 그대로 의미에서 '물질 덩어리(mass)'로의 전락을 의미했다. 동구권 사회주의의 좌절을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일차적으로 생산력과 군비 경쟁에서, 이차적으로 문화적 주도권 쟁탈전에서 패배했다. 사회주의 이념과 문화가 정치적 도덕적 성격을 강하게 견지했다면,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능적이며 이기적인 욕구에 호소했던 것이다. 동구권으로 흘러든 자본주의의 향락 문화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회를 저주하고 어메리칸 드림에 중독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IV. 제국주의에의 저항

오늘날 세계화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문화 제국주의가 더 이상 논의의 주제일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제 제국주의를 '세계화(globalization)'가 대신하게 되었으며, 세계화론은 과거 제국주의의 문화 논리와 어떤 일관성이나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사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관계들의 세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개별 사회들의 문화적 통일성이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오늘날 매스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로 세계 인구의 20-30%가 공통된 문화적 경험에 의해 동시에 결합되었다. 그러나 문화의 이러한 세계화 추세는 보다 인간적인 수준의 문화적 경험을 조직적으로 차단해 나간다. 우리는 소외된 상태 속에서 극도의 수동적 자세로 초국적 문화산업들이 제공하는 상품들에 중독되고 마취되어 간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주의가 막강한 힘으로 행사하는 국제적 단위의 통합에 맞서 그것을 상쇄하고자 하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초국적 자본의 비인간적인 세력에 맞서 민족이나 문화권들 고유의 동질성과 다양성 그리고 주체성을 찾으려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 저항의 불길 가운데 우리들의 희망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이윤재
〈민족주의 연구소 소장〉

삶의 방향을 노래하고 싶다

이동혁군, 창작발표회 이후 인터뷰

훤칠한 키에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는 민중가수 이동혁(사범 · 독교4)군. 지난달 14일(토) 창작곡 발표회 '봄을 기다리며'를 마치고 난 후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노래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털어놓았다. 그가 오늘의 이동혁으로 있기까지는 원했다기 보다는 상황에 이끌렸다는 표현이 더 맞다. 독교과 노래패 '세살이' 시절 패장이 군대를 가는 바람에 1학년인 상태로 패장을 했고 2학년 때는 외대노래창작단의 가수가 부족해서 창작단의 공연에 많이 참여 해 다른 사람들보다 1년은 빠르게 외창단 활동을 시작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그는 사랑타령이나 이별타령이 대부분인 대중가요와는 차별된 민중가요를 진정으로 부르는 사람이고 싶다고 한다. 그의 이런 생각은 이번 공연에도 적용된다. "나같이 작곡이나 작사에 대해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도 창작을 하고 개인 공연까지 갖는 것을 보며 후배들이 창작을 부담보다는 일상으로 느낄 수 있는 있었으면 한다"는 그는 창작이야 말로 민중가요가 좀 더 학우들에게 사랑을 받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노래패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노래운동의 또다른 출발이라며 서울배움터에 있는 인생을 아는 '세살이', 삶을 노래하는 '못갖춘마디'(중국어과 노래패)등도 노래패 이름의 취지를 잘 살렸으면 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창작활동의 기반은 무엇일까. "이번 공연에 불린 노래 '내일은 맑음'은 후배의 낙서를 보고 만든 노래이다"며 이동혁군은 '생활자체가 창작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한다. 얼마전 KBS에서 민중가요제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그는 "민중가요도 투쟁가나 서정풍의 이지리스닝 단조의 틀에 박힌 형식에서 탈피하여 민중에게 사랑받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에 대해 기쁨을 보였다. 한편 그는 올해부터 서총련 노래단 '조국과 청춘'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부 차장

만나보기 -박노해 시인의 부인 김진주씨

"박노해 시인의 무기징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무기징역"

진정한 표현의 자유 보장은 사상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가능하다. 이 법으로 인해 지금 다수의 문인이 감옥안에 있다. 이들에 대한 사면조치가 논의되는 시기에 노동자 시인 박노해씨의 부인 김진주씨를 만나 구속문인의 가족으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진주씨도 사노맹사건으로 4년을 선고받고 95년 4월에 출소했다. 그녀는 "박노해 시인이 무기징역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것"이라며 박시인의 구속과 기존정권의 처사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박노해씨 구속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석방운동을 펼친지 벌써 3년째다.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7년이라는 긴 시간과 감옥의 벽이 너무 크다.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댓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하다.

역사적 사명이란 무엇인가.

이 사회의 노동자와 민중을 위해 그들을 억압하는 구조와 이런 현실의 모순을 알고 실천에 옮기는 활동이다.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건설하는 일이다.

그래도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지 않은가.

박시인이나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상 ·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많은 고초를 겪게 만든 곳이 바로 이 나라다. '자유'와 '민주'는 허울좋은 껍데기일 뿐이다.

박노해씨의 최근 근황을 알고 싶다.

밖에 있을 때 수배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 오히려 감옥에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건강해졌다. 요즘 박시인은 젊은이들을 보고 싶어한다. 감옥안에서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서태지춤도 연습하고 있고 최신 유행가도 외우는 일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상황에서 박노해씨가 석방 이후 집필활동이나 운동을 한다면 공안당국의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재구속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노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현재 박시인은 구속되어 있다. 우리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위반으로 구속되어있다. 내가 구속되었을 당시 나에게 적용된 국보법위반혐의가 너무나 황당하여 영장을 찢어버린 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법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올바른 절차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을 지어 정권 안전조치에 많이 사용되었다. 원칙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에 동의 한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지쳐있다. 먼저 나와 박시인이 해야할 일부터 하는 것이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문화부 공동기자단

문화제국주의는 있다.

문화제국주의의 실체(706호)
문화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이론
①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 역사적 과정(707호)
②포스트 모더니즘의 폐해(708호)
③문화연구 비판(709호)
IMF시대와 문화제국주의 (710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711호)

전국연합, 98년 사업방향 결정

대의원 대회 통해 한미행협 개정, 남북합의서 이행 등 과제설정

예년과는 달리 한총련 대표가 마지막 순서인 결의문을 낭독해 지난해 집중적으로 공안탄압을 받아왔던 한총련과 전국연합의 결속강화를 시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지난 3월 1일(일) 7기 정기대의원대회(대대회)를 열고 98년 사업방향을 결정했다.

전국 12개의 지역연합 및 노동·농민·학생 등 11개의 부문단체 등 소속 대의원, 참관인 등 500명 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대회에서는 작년 6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의장단 선출, 그리고 IMF 구제금융과 정권교체로 인해 변화된 올해 정세전망 및 98년 조직사업과 투쟁방향 등에 대해 심의·승인했다.

7기 전국연합 상임의장에는 이창복 전의장이 재임됐고, 공동의장 선출은 중앙위원회에 위임했다.

올해 정세에 대해 전국연합은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자본과 미국의 직접적 지배가 강화되고, 물가상승과 저임금, 그리고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등의 도입으로 인한 대량실직 등 민중의 고통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부분적 개혁을 통한 국가기능 축소, 시장기능 강화를 꾀하고, 권력기반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국민설득(국민과의 대화 등)과 광범위한 포섭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유도, 장기적이고 완만한 흡수통일을 지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98년 전국연합 조직사업 방향에 있어서는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질적발전과 단결을 통한 전선의 확대강화·정치조직 건설이라는 중장기적 과제와 98년 당면한 조직적 자기진단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치조직 건설에 대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참가한 주상혁(대경총련 임시의장·계명대 총학생회장)군과 서울연합의 김영일씨는 "정치조직의 상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조직의 건설이 전국연합의 조직강화에 어떻게 귀결될 수 있는지의 부분이 확실치 않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후 논의 결과 이 부분과 구체적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민중의 요구를 심화발전 시키기 위해 미군부대 되찾기 운동을 기초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남북합의서 이행 등의 투쟁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올해 통일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통일운동에 있어서 일정정도 단결하지 못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의 연대 및 단결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회 마지막 순서인 결의문 낭독은 예년과 달리 한총련 대표 주상혁군이 맡아 지난해 집중적으로 공안탄압을 받아왔던 한총련과 전국연합의 결속강화를 시사했다.

한편 전국연합은 91년 12월 창립 이후 처음으로 오는 4월 5일 7기 출범식을 열기로 했다. 또한 경기동부연합이 정식으로 전국연합의 지역단체로 가입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대의원대회 달라진 점과 그 의의

혁신·강화를 위한 단결의 장

작년 전국연합을 돌아보면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새해초부터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악철회를 위한 범국민투쟁을 시작으로 한보비리, 김현철 비리사건, 경제파탄, 민생파탄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부정부패무능의 김영삼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통일운동의 분열과 15대 대선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많은 시련을 겪기도 했다. 예전에 비해 조직력과 단결력, 통일성이 많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강민조(광주전남지역 양심수협의회 상임의장)씨는 "참가한 대의원 수를 보면 전국연합의 현재 상황을 짐작할 수 있지 않으냐"고 얘기한다. 실제로 작년에는 400명이 넘는 대의원이 참가했으나 올해는 300명도 되지 못했다.

그래서 전국연합은 이번 대대회를 혁신과 강화에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예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전까지 모든 안건이 전국연합 본부에서 제안되고 토론되던 방식에서 탈피, 대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과 부문단체들의 기본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준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과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건 발제를 각 소위원회 위원장들이 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상층과 본부 중심이 아닌 기층과 지역, 부문단체 중심으로 대대회가 준비되면서 그동안의 분열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낳았다.

그리고 4월 5일 처음 열리게 되는 출범식도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자리를 통해 전국연합에 대한 인식과 소속감, 통일성을 높이고 결집을 도모함으로써 '단결과 연대'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또한 마지막 순서인 결의문 낭독을 한총련 대표가 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대부분 지역연합 의장이 낭독하던 예전의 관례와 현재 한총련이 공안탄압의 집중표적이 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이석씨 사망 사건 이후 광폭한 탄압을 받아왔던 학생운동 진영이 전국연합 등 사회민주단체와의 실질적인 연대를 이루지 못하면서 나섰던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전국연합도 적극적인 극복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전국연합 한 관계자는 이번 대대회가 "전국연합의 혁신·강화와 민민운 진영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분명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 전국연합을 포함한 민민운 진영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지연 기자

교육부, 학생운동 왜곡 유인물 배포

지난 2월 중순, 교육부가 '대학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제작, 이를 각 대학에서 배포토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이 유인물은 대학생활의 M·T나 새터, 동창회, 과모임, 동아리모임 등도 모두 운동권들의 치밀한 사전 전략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운동권 학생이 되는 과정 △한총련의 실체 △좌익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 △신입생들이 해야할 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유인물은 학교측에 사전통보도 하지 않은 채 택배로 배달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 우리 학교는 배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의 이번 유인물에 대해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임정민(경상·무역 4)군은 "학생회와 학생회 간부를 탄압하던 것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새내기로 하여금 학생회와 학생운동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려는 술책"이라고 못 박고 "새터에 가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중심이 된 이번 유인물은 근본적으로 새내기를 공략하여 학생회와 학생운동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무기력화시키려는 의도이며 학생운동 죽이기의 연장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군은 대학문화 전체를 운동권들만의 것으로 매도하며 이를 매장하려는 움직임과 대학인들의 자주성을 말살하려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학의 존재의의와 대학인의 정당한 요구, 권리를 부정하고 말살시키려는 의도의 이번 교육부 조치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교육부가 학생운동과 일반인들의 간극을 파고들어 괴리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라며 우리가 애초에 파고들만한 괴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학생운동이 돌아봐야할 문제일 것이라는 반성의 지점도 잊지 않았다.

한편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강성삼(사회·신방 4)군은 "선배가 후배를 순수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할 때 후배 또한 혼란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겸신 기자

만나보기 ―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국가보안법은 인권문제의 원흉"

지난해 11월 4일 구속됐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지난 2월 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에 본보는 3개월간의 수감생활과 우리나라의 인권 현실에 대한 서준식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서준식 대표는 지난해 영화 레드헌트 상영과 인권영화제 개최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었다.

편집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경우 보석 석방되기가 힘들다. 보석으로 출소한 소감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지금 느끼는 것은 서로가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공안권력은 나와 가족, 인권운동사랑방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는 공안당국측에 그만큼 되돌려줬다고 생각한다.

'되돌려줬다'는 말의 뜻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공안당국이 '잘못 잡아들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었다. 검찰 조사를 일체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내 조서에는 지문이 찍혀있지 않다. 그리고 석방 직후 감옥에서의 인권침해와 제소자의 처우 등에 관한 굵직한 네가지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특히 신문, 잡지 등의 특정부분을 삭제하는 문제는 불가피하게 탈옥, 난동, 증거인멸, 자살 등의 위협이 있을 경우로만 한정해야 하는데, 내 경우 집사람이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진을 내가 봤을 때 감옥에서 힘을 얻는다는 이유로 보지 못하게 했다. 미결수에게는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데 이를 막음으로서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영화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는데.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레드헌트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됐던 작품이다. 그런 영화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것은 두가지 의도가 있다.

첫째는 인권영화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하락, 왜곡시키려는 의도이고, 둘째는 그래야만 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구속의 이유가 레드헌트의 이적성 여부가 아니라, 인권 칼럼을 쓰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나에 대한 괘씸죄인 것이다.

검찰은 또한 레드헌트와 관련해 "상영자의 의도가 불순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의 머릿속에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 그것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치즘, 메카시즘, 일본 군국주의가 불러왔던 것과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형벌은 사람의 행동만을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그런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가보안법은 인권문제의 원흉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구체적인 법 조항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요인이 더 크다. 사상과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 그렇게 노력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사회, 말조심해야 하는 사회,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석방 폭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청산하지 못한 수구세력과 자민련이라는 족쇄를 차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한계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서 양심수가 석방된다고 기대하면 안된다. 우리의 힘으로 양심수를 되찾아야 하는 것이다. 수구세력이 남아있는 한 정치적으로 석방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약자는 서럽다.

사회부

한총련 소속 대학생, 미문화원 점거 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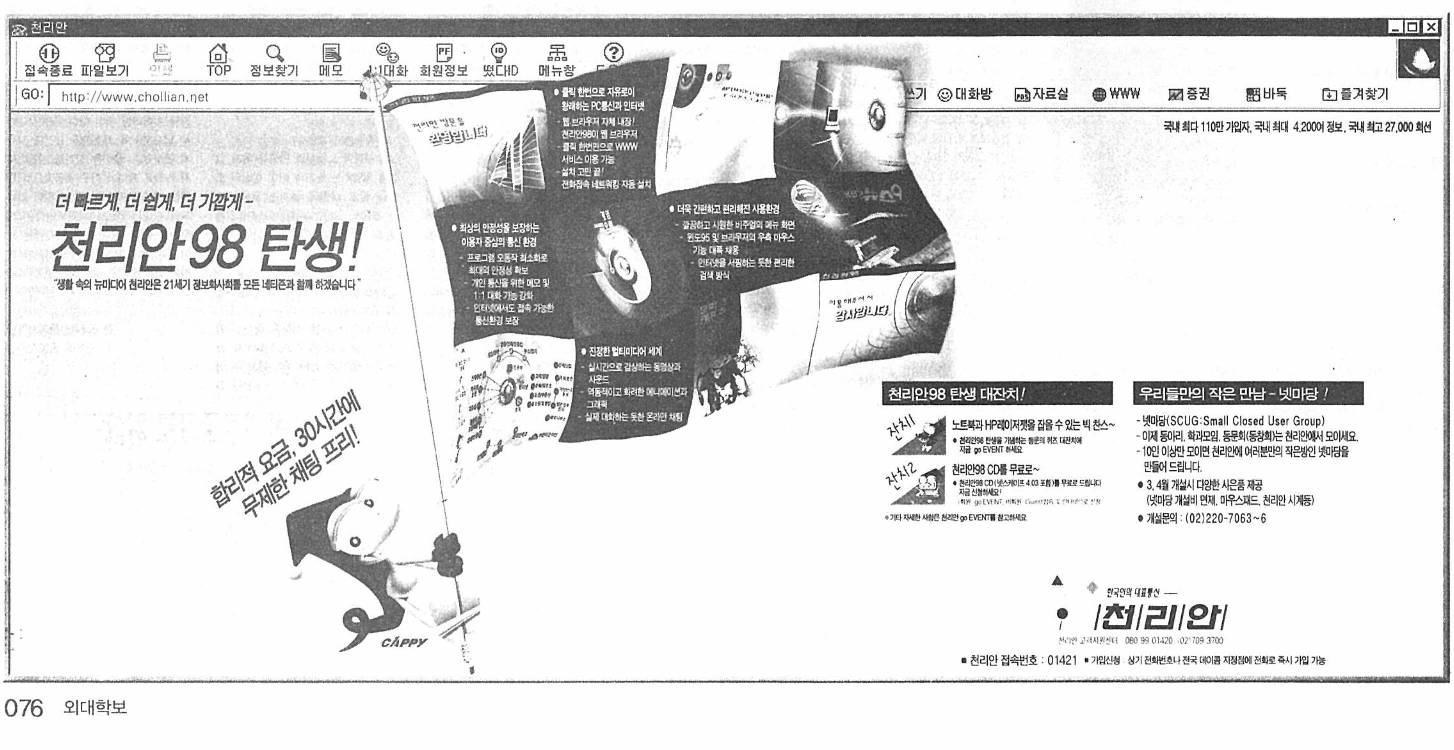
지난달 9일(월) 오필진(한양대 금속공학과·94), 권영보(경북대 농학과·93)군 등 한총련 소속 대학생 두명이 'IMF 신탁통치 미국 배후조종'과 관련 용산 미군기지내 미문화원을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날 미문화원을 기습 점거한 두 학생은 'IMF 신탁통치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미국은 물러가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뒤 곧 대치중이던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이에 대해 한양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윤형철(화학공학·4)군은 "두 학생은 미국의 경제침략을 국민들에게 알리려 한 것"이라며 "두 학생의 구속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양대에서는 3월중으로 두 학생의 구속에 대한 반대 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두 학생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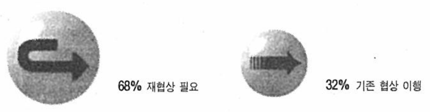


외대생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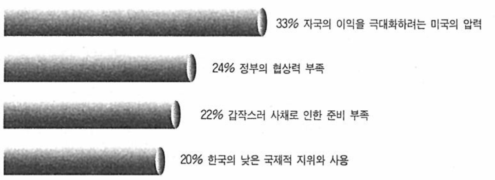
본교생 68% 'IMF 재협상 필요'

IMF 재협상 최대걸림돌 '미국' – 57% 답변

IMF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IMF 협상이 불리하게 진행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외대생 3명중 2명 이상이 IMF 구제금융과 관련해 '재협상이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지난 3월4일(수) 실시한 결과 'IMF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68%, '기존의 협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답한 학생이 32%로 집계됐다. 이 결과는 재협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의 분위기와는 달리 학생들은 IMF이행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요구됐다는 생각과 함께 IMF 재협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IMF 협상이 우리나라에 공평하게 진행됐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 결과에서도 드러나는데, 20명(8.5%)의 학생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을뿐 155명(66%)은 '아니다', 나머지 59명(25%)는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IMF협상이 불리하게 진행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33%의 학생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의 압력'때문이라고 답해 미국의 책임을 강하

게 제기했다. 그밖에 '정부의 협상력 부족'이라고 답한 학생이 24%, 갑작스런 사태로 인한 준비부족이 22%, 우리나라의 낮은 국제적 지위와 신용이라고 답한 학생이 20%로 집계됐다.

반면에 '재협상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으로 나눠져 재협상의 필요를 느끼는 것만큼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강대국(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이 57%로 다른 답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IMF 극복이 김대통령의 공약대로 1년반만에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2%(180)의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학생들의 대다수가 최소한 3-4년 정도 걸릴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로는 '우리 경제의 총체적, 근본적 문제가 몇 년만에 해결될 수 없다는 의견'이 60%로 집계됐다.

왜 재협상인가?

불평등한 협상 개선 없이 경제 회생 없다

장기적 경기침체, 민중생활 피폐, 종속적 경제구조 심화 현실로

'IMF와 재협상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IMF의 이행조건이 과연 우리 경제를 제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것인지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IMF 요구사항은 크게 ▲저성장, 저임금, 고물가, 고실업, 고세금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금융산업 정리 및 인수 합병 허용 ▲자본시장 개장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도입 ▲재벌체제 개혁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이런 IMF의 요구사항이 우리 결제르르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인가? 답은 '노'다. 매년 6-7%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민간경제연구소는 -2% 예상)로 잡을 경우 150만-180만명(1%)하락시 30만명의 실업자 발생)의 실업자가 생겨난다. 또한 투자위축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는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것이다. 금융시장 전면개방과 인수합병의 허용은 우리나라의 자금줄을 외국은행에 넘겨주게 되고, 결굴 국내 알짜배기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리란 예상은 쉽게 할수 있다. 국제 금리에 비해 턱없이 높은 이자율과 전면 시장개방은 우리 국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이자를 갚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내몰고있다. 물가 폭등과 세금 인상으로 가정에서는 나가는 돈은 많지만 상여금·성과금·임금체불로 실질임금은 하락하여 대부분의국민 생활이 피폐화될 것이다. 또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으로 대량실업과 고용불안이 극에 달할 것으로 이미 예상되고 있다. 이는 결국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져 실업자 150만명에 4인가족을 기준으로 600만명 이상의 실업자의 여파를 치러야 한다. IMF는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고서는 그 돈을 기업의 재생, 기술재건, 원자재 구입등 생산투자에 쓰지 말고 외국자본의 채무를 갚는데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IMF 구제금융의 본질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IMF는 한국경제를 외세에 예속화하고 더 많은 이윤을 빼가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또한 경제 뿐만아니라 경제정책과 방향, 예산편성과 집행, 군사, 문화까지 IMF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결국 현재 IMF 이행조건은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예속경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초국적자본의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IMF의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시기에 자금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과거 미국, 프랑스, 영국 등도 IMF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 지원은 정책적 개입이 빠진 단순한 금융거래였다. 또한 한국의 부도는 일본, 미국을 포함해 세계 대 공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부도를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갑득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식민지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경제주권을 회복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말지 2월호)"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이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IMF의 과도한 이행조건을 재협상을 통해 완화 시켜야 한다. 그럴때만이 경제도 살리고 경제주권도 지킬 수 있다.

사회부

> 본교생 설문조사 결과 세명중 두명이 IMF 재협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IMF의 가혹한 이행조건을 다 지키다보면 빚은 커녕 이자 갚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본보는 IMF 재협상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주부터 앞으로 6번 동안 IMF 재협상 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그 첫회로 'IMF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왜 재협상을 얘기하는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호는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재협상 필요부분을 실습니다.
>
> 편집자

IMF 해부 1

'강요만 있고', '책임은 없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는 지난 1944년 미국과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회원국의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로서, 함께 설립된 세계은행(IBRD)과 더불어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 금융질서를 떠받쳐오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IMF의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은 1982년 중남미국가들의 채무불이행 위기때 크게 강화됐고 특히 지난 95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 수습에 적극 개입하면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IMF는 대규모 금융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회원국의 필용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족한 외환을 공급해주는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도 한다.

깡드쉬 총재는 IMF에 대해 "IMF는 모든 수혜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왔다"라고 설명한바 있다. 이 말의 뜻은 IMF는 '자문'역할을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때문에 민간단체들은 IMF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해왔다.

IMF의 무책임성은 소말리아의 경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소말리아는 주기적인 가뭄에도 불구하고 70년대까지 자급자족적인 목축사회였다. 83년까지 소말리아 경제의 80%는 가축생산이었고, 인구의 50%가 목축에 종사했다. 그러나 80년대 초 외채상환의 절박성 때문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채권자였던 IMF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외국의 값싼 곡물이 수이되고 농가경제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다. 농업보조금은 금지되고, 화폐가 평가절하되면서 비료, 가축의약품 등 목축소비재의 가격은 폭등했다.

또한 국영 가축보건서비스가 강제로 민영화되면서 정부의 부패와 관개시설의 낙후가 겹쳐 목축업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민영화된 보건체제 아래 전염병의 빈발로 육류 수출의 길 또한 완전히 막혀버렸다. 가뭄과 일시적인 기근은 주기적으로 있었지만, IMF가 개입하면서 통제불능의 위기상황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후 소말리아는 기아와 가뭄, 종족 살상과 야만의 상징으로 변했지만 IMF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소말리아 외에도 IMF 구제금융을 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강요된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지만 IMF는 '강요'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IMF 해부 2

미국은 '몸통', IMF는 '깃털'

IMF와 미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IMF의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

IMF는 일종의 주식회사다. 한나라가 한표씩 의결권을 갖는 유엔과는 달리 IMF에서는 돈을 낸 비율(쿼터)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IMF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미국은 IMF 기금(1435억SDR) 중 18%를 부담하고 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쿼터 18%는 IMF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결정을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MF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85% 이상의찬성이 필요하다. 거꾸로 생각하면 지분을 18%의 미국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IMF에서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부여받은 나라는 없지만 지분을 18%의 미국은 사실상 IMF의 거부권을 가지고있는 셈이다. 현재 지분을 15% 이상인 나라는 미국뿐이며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을 합쳐야 15%를 넘는 정도이다. 이는 IMF가 미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가장 큰원인이다.

IMF와 미국과의 관계는 초국적자본의 대부분들이 미국과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현재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진두지휘하는 미 재무부 로버트 루빈 장관이 바로 골드먼 삭스(미국의 초국적자본을 주도하는 금융그룹의 다국적이버의 기업사냥을 대행해주는 것으로 유명) 회장 출신이다. 또한 얼마전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도 미국의 대표적인 M&A 전문중개회사 경영인 출신으로 클린턴 정부 출범후 세계은행 총재에 앉게 된 인물이다.세계금융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IMF와 세계은행이 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세계금융시장에서, 구체적으로는 IMF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어느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IMF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달리 전 유럽부흥개발은행(EBRO)총재는 "최근 IMF가 동남아와 한국의 사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극내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 점에서 미구과 IMF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관리하는데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IMF는 그런 미국의 유용한 차단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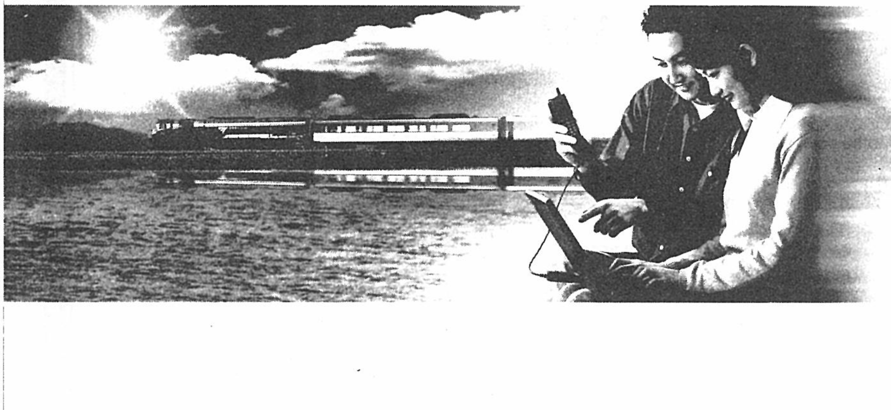
또한 독일 DPA 통신은 IMF'의 아시아 개입은 월스트리트의 승리'라는 기사에서 IMF"가 한국사태에 적극 개입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희망 때문이며, 미국의 의돈느 미국 투자가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시장으로 간주되던 한국시장의완전개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백지수표'일 것이다"라고 미국의 의도를 전하고 있다.

正道경영 · 초우량LG

사랑과 사업의 동반자 LG텔레콤

"강촌 가는 기차 안에서 LG 019로 레포트를 보냈다"



光PCS 빠르다 깨끗하다 LG 019 PCS

오늘은 신입생 환영을 위한 우리학과 총MT의 날-

레포트 마감일과 겹쳐 MT냐, 학점이냐를 고민하던 나에게 반가운 소식 한가지-

LG 019가 세계최초로 PCS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내가 가진 LG 019를 노트북에 연결만 하면 PC통신은 물론 인터넷, FAX 송수신까지!

강촌가는 기차 안에서 인터넷으로 자료 찾고, 작성 후 교수님 연구실로 바로 E-mail송신-

아, 해방이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입생 군기 좀 잡아볼까?

우리가 믿는 것은 기술입니다 – LG 019 PCS

세계최초 CDMA기술 상용화
95년 4월 1일, PCS기술의 초석이 된 CDMA 통신장비(Starex-CMX) & PCS통신장비(Starex-1800)를 상용화 하였습니다.

세계최초 광중계망 기술개발
100% 광케이블을 이용,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중계망(L'COTA)기술 개발-통화영역,통화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갑니다.

세계최초 PCS데이터 서비스 개시
CDMA방식으로는 세계최초 - 98년 3월부터 LG019단말기와 PC를 연결하면 PC통신, 인터넷 검색, FAX 송수신이 가능해지는 데이터서비스(InfoNET)가 펼쳐집니다.

LG 019 PCS

빌딩 숲에서 산간벽지까지 - 光PCS LG 019

재단 고치기, 외대 살리기 - ① 재단의 지위와 역할

재단이사회, 교원임명 등 법적 권한 막강

본분인 학교에 대한 투자 잊지 말아야

사진부

학내가 재단문제로 들끓고 있다. 박승준 전 재단(학교법인) 전무이사의 비리나 이숙경이사장과의 갈등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학생들을 비롯한 각 구성원들의 재단에 대한 의사개진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 직원 그리고 교수들의 성명서는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학교발전에 앞장서는 재단으로의 발전, 민주적인 대학운영'으로 축약된다. 이처럼 현재의 재단은 구성원들의 요구들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과는 상이하게 학교발전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보의 기획에서는 우리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립대학 재단의 역할과 현실의 모습들, 진정한 사립재단으로의 위치매김등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법적으로 살펴본 사립대학 재단의 역할과 지위를 중심으로 우리학교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교육이라는 사업은 흔히 국가의 미래를 양성하는 사업이자 민족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이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재단이 국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일부(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지만)대학의 운영을 맡고 있다. 즉 사립학교의 경영자인 사립학교재단은 학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인 교육사업을 국가로부터 잘 해나갈 의무를 위임(대행)받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얼마전 우리학교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육영기관의 비리는 더욱 엄중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는 대목은 바로 이 같은 사립학교재단의 역할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보며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먼저 대학을 설치할 자격부터 보자. 사립학교법 제 5조에서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및 재산을 갖추어야하며 이에는 부동산, 정관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우리학교의 경우 동원농산주식회사와 준미디어주식회사등),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재산 등이 있다. 이렇게 설립된 법인에는 이사회가 있다. 그 임원으로 7인이상의 이사를 둘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지난 97년에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15인 이하라는 제한도 있었다. 이사회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법인의 예결산, 차입금 및 재산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합병 및 해산 △총장 및 교원 임면 △당 학교의 중요사항 △수익사업 관련 사항 등의 사항이 이사회 안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제 20조는 요즘 학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사장임기와 관련시켜 볼 수 있다. 바로 임원의 임기에 관련한 부분인데 우리학교의 경우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그런데 이사는 계속 중임을 할 수 있으므로 현 이사장은 중임을, 박승준이사는 그에 대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조에 있는 이사회 구성에서는 이사회의 2/5이상이 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학교의 경우 9명 중 5명이 박이사를 비롯한 서로가 서울대 동문이나 적용되는 관련법규가 없다.

교수와 직원에 대한 사항도 법인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교수에 대해서는 서울배움터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할 수있다.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신규임용, 승진, 직위해제,해임) 시 임용권자가 능력의 실증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노조는 직원인사에서 법인의 특정이사가 직원인사에서 전횡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사립재단의 가장 큰 역할은 학교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교발전을 계획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 얼마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번일을 계기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말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재단의 모습을 기대한다.

'경제난국이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고 우리대학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재단으로서는 결단을 내려 경기도 이천의 임야 일만 이천평을 내놓겠으며 필요하다면 강남 자곡동 세곡동 토지 이십일만 평도 내놓겠습니다'

대학부

학교법인이 뭔가요?

우리가 흔히 재단이라고 부르는 개념이다. 법적으로 보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은 흔히 말하는 사람이고 법인은 법에서 사람으로 간주하고 권리와 의무를 주는 것이다.

공익사업 위한 비영리집단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무슨무슨 문화재단'처럼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의 집단으로 사람들의 집단인 사단법인과는 다르다.

여기서 학교법인이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을 받아 국가로부터 법인세와 취득세 등을 감세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재단법인 중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은 법인만이 학교법인으로 간주될 수있다.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면 재산을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이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경제적인 희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재산은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이사와 이사장이라고 해도 법인의 관리자일뿐 소유자는 아니라는 말이다. 법인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도 내지 않는다. 물론 사학은 개인이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의 관리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많다.

또 법인이 해산될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사업체 등)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며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우리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는 재단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인데 흔히 동원재단으로 불린다.

역사속에서 고찰해본 우리학교법인

끊임없는 내·외적 갈등과 분규의 역사

고 김흥배박사(설립자)는 1954년 4월 20일 종로2가 영보빌딩 가교사에서 한국외국어대학을 설립한다. 이후 설립자는 학교발전을 주로 우수교수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종합대학화를 위해 집중투자를 하게된다. 특히 4.19나 80년 서울의 봄 등 정치적격변기를 맞아 학생들에게는 학원민주화와 반재단의 열풍이 몰아치기도 했으나 군정권에 의해 평정되고 만다.(54년~79년)

77년부터 80년까지 박정희정권 하에서 양적팽창을 거듭하면서 협소한 공간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 기간동안 진행된 종합화의 내용은 야간대학 8개 학과 설치, 시청각교육원, 동시통역대학원개설 등이다.

이어 80년대로 들어서면서 용인배움터설립을 비롯한 본격적인 양적팽창에 집중하게 되나 아무런 준비없이 진행된 용인배움터설립은 학생들의 분노만 샀다. 질적인 발전을 도외시한 것이다.

법인의 변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86년 설립자인 김흥배 박사의 병세 악화로 이사장직을 이숙경 현 이사장이 맡게되면서부터다. 동시에 이 이사장은 고령을 이유로 조카인 박승준(전 전무이사)씨에게 재단업무의 전반을 맡기게 한다. 그 때부터 박이사가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했던 것이다. 2년후인 88년 재단에는 요즘 박승준이사와 함께 자주 거명되는 이양희 사무과장이 들어온다. 이 사무과장은 학생들에게 현재까지도 능숙한 여론조작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들이 재단에 대해 재단전입금확충 등의 요구를 할 조짐이 보이면 '동원재단은 돈없다, 불쌍하다'는 논리로 학생들의 의지를 꺾곤했다고 한다.

이때를 즈음하여 김덕배이사(김흥배 이사의 동생)가 박이사, 이사장과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당시 김이사는 이사장에게 '박이사가 외대를 몰락시킨 주범이며 먼 훗날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이 될 야심에 가득차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80년대에서 90년대로 들어서면서 고율의 등록금인상과 정체된 학교발전으로 인한 재단에 대한 불신감이 심하게 증폭돼 갔다. 학생들의 등록금투쟁은 계속되고 재단에 대한 불신은 쌓여만 가는 도중에 드디어 92년에 학생들은 외대발전의 가장 큰 적으로 박이사를 주목한다. 21일간의 수업거부 등 강력한 대중적 힘에 밀려 재단은 학생들과 학교발전을 위한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동판으로 만들어 도서관 앞에 세워두게 된다.(그러나 작년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 철거됐다)

93년부터는 학생회내부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단에 대한 활발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박이사는 자신의 토대를 안정되게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97년말 이사장과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

돈 내는 교수

O…옛날에 대학이라는 동굴이 있었는데.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은 학생, 직원, 교수라는 동굴전용 차를 이용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기에. 어느날 크로니클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전용차를 알아보니 학생, 직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교수는 유료라고 하네. 허! 크로니클자 하는 말 "대학들어갈려는데 교수는 꼭 돈을 내야하는지"

〈석〉

O…외대에 요즘 음란서적이 돌아다녀 학교당국에서 수거령이 떨어졌다고.

우리 크로니클자 혹시(?)하는 마음에 물어 물어 서적을 손에 넣었는데.

책 겉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책이름-「외대」교지

표지사진- '재단비리 부문 최우수 대학, 재단비리의 기수-외대'가 쓰여진 정문

당신도 운동권

O…신성한 대학내에 불법 유인물이 나돌아 다닌다는 소문에 발벗고 진상조사에 나선 클로니클자.

발행처도 인쇄처도 불분명한 그 유인물에는 대학내의 모든 행사가 위험한 운동권의 조작이며 대학내의 어떤 행사라도 참여하기만 하면 무서운 운동권이 된다는 엄포가 담겨있더라.

겁 많았던 클로니클자. 학교의 모든 행사는 피해다니기만 했는데. 어느날 클로니클자 입학식에 참석한 총장을 보며 한숨을 내쉰다. '쯧쯧. 결국 총장까지 운동권의 포섭에 걸려들었군'

〈겸〉

비둘기칠판

이문벌

□ 모집합니다

· 외대통역협회 19기 정기 신입회원모집
1차시험(17일)- 번역, 작문, LC
2차시험(19일)- 논술, 외국인 교수님과 인터뷰
3차시험(23일)- 면접
문의- 학생회관 2층 통역협회

〈통역협회〉

· "성폭력 없는 세상, 나눔이가 만들어 갑니다."
사무 보조 자원 활동가 나눔이를 모집합니다.
문의- Tel. 576-5513.4

〈한국 성폭력 상담소〉

□ 알립니다

· 수화교실이 열립니다.
때- 3월 16일(월)부터 매주 월,수요일
곳- 인문관 4층(1405)
모든 학우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손소리샘〉

· 대학원 세미나실 312.313호 사용신청을 받습니다.
자격-일반 대학원생
3월 둘째주까지 신청 받을 예정

〈대학원 총학생회 학술부〉

· 좋은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
매표시 외대 학생증 제시하면 30% 할인

〈22대 대학원 총학생회〉

□ 찾습니다

· 갈색 가파치 장지갑을 찾습니다.
주민등록증, 도장, 현금 2만원, 엘칸토 구두 상품권
연락처-(015-410-7491)

〈네덜란드 98 정선일〉

왕산골

□ 알립니다

· ALA 개강총회합니다.
때: 3월 9일 (월) 늦은 5시 30분
곳: 학생회관 421호
많이오세요

〈ALA〉

· VEC 영어회화반 개강총회
때: 3월 9일 (월)
곳: 학생회관 209호

〈VEC〉

· 서울·정신 98 첫 동문회
때: 12일 (목)
곳: 승차장 깡통(승차장 매점 내)
참가비-만원(새내기들은 무료)
신입생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정신 동문회〉

· '미림여고, 남강고'를 졸업하신
98학번 새내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남회〉

□ 수고하셨습니다

· 새내기 새로 배움터 준비단 여러분
98새터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9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98 신입생 입학식 열려

각 배움터 많은 인파로 가득메워

98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일(월) 서울배움터 오전 10시 분수대 앞 광장과 용인배움터 오후 2시 노천극장에서 각각 열렸다.

서울배움터 입학식은 △입학허가선서 △신입생 선서 △총장말씀 △이사장 치사 △장학증서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 됐으며 이사장 치사에서 이숙경 이사장은 "우리학교는 해가 지지 않는 학교로 불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가지지 않는 학교로 불리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많은 인파로 노천극장을 꽉 메운 용인배움터 입학식에서 총장 직무대행 조규철 교수는 "학교의 특성을 살려 전공이든 아니든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습득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신입생들을 격려 하였다. 입학식이 끝난 후 총학생회 행사가 진행 됐다.

재단 자문교수회 발족

이사장 이전에 구성 뜻 밝혀 의장 유정렬 교수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자문교수단이 발족했다. 이는 지난 2월 13일(금) 있었던 긴급교수회의 이사장 담화에서 이숙경 재단이사장이 원로교수들로 구성된 자문교수단을 두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유정렬(정외과)교수를 의장으로 하는 이 자문교수단은 임진권(사범대), 박병호(경제학과), 오한진(독일어과), 김광요(독일어과), 이상준(영어과), 김지수(법학과), 박성래(사학과), 우덕룡(서반아어과)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교수단은 지난 5일(목) 교수식당에서 1차 회의를 진행, 박승준 이사를 해임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국 재단이사장고문과 조종혁 사무처장도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이사장 중임요구결정, 위촉장 수여 등이 진행됐다.

방중 동문 2명 사망

교통사고, 군복무 의문사 등으로

서울배움터 고 한지윤(인도어과 4)군과 김정민(영어 1)군이 방중에 숨을 거두었다. 96학년도 외대 풍물패연합(외풍연) 선전국장이었던 고 한지윤군은 지난달 25일(수) 양평대교에서 자동차 시승중 불의의 사고로 한양대 구리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고 한지윤군은 9월에 결혼할 예정이어서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한편 고 김정민군은 군복무중 1월 17일(토) 의문사로 사망했다. 과 친구인 강민규(서양·영어2)군은 "군에서 알수 없는 원인으로 아까운 인재가 희생 됐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알림 바로잡습니다

705호 신년호 총장선거 관련 기사중 조규철·서재명 후보가 각각 120표와 102표를 얻은 것은 2차투표의 첫번째 투표결과이며 두 후보간의 결선투표에서는 조규철 후보가 169표, 서재명 후보가 129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외대학보—

통역대학원 총동문회 개최

초대 동문회장으로 성백환 교수 추대

지난 2월 20일(금) 국제관에서는 통역대학원 총동문회 첫모임이 열렸다.

통역대학원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열린 이 자리에서는 초대 동문회장으로 성백환 경희대교수(영어과 72학번, 통대 한영과 1기 졸업)를 선출했다.

또, 부회장으로는 통역대학원의 이창수교수와 '아웃 소스 코리아'의 문덕대 대표를 추대했다.

동문회는 기념사업으로 △동문회주소록발행 △소식지 발행 △통번역 학회 건립 등을 계획 중이다. 동문록은 4월말에 완성된다.

그 외에도 동문회에서는 동문들의 취업이나 아르바이트알선사업도 한다.

이와 관련, 동문회장으로 선출된 성백환교수는 "그동안 사회각계에서 바쁘게 지내다보니 동문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모든 회원이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만큼 잘 잘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성백환 동문회장의 연락처는 집404-0849, 핸드폰011-411-8883이다.

무료 법률 상담소에 지원금

지난 2월 6일(금) 우리학교 무료법률상담소에 일백만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다.

주식회사 성오의 상무이사인 황인택(44)씨는 지난 학기 세계경영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면서 외대학보 699호에 실린 「법률상담소」에 관한 기사를 읽고 동문법조인 및 "학생들의 순수한 봉사활동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며 기부금을 냈다고 한다.

이에 관련 담당 간사 이주일(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씨는 "외부에서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법률상담소에 대한 학교의 공식적인 인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대기련 출범식에서 본보기자 수상

지난달 5일(목)부터 8일(일)까지 3박 4일간 연세대학교 원주배움터에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21기 총회 및 22기 출범식이 열였다.

이번 행사는 전대기련 소속 기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대기련 22기 김세규(경기대 학보사 33대 편집국장)군의 의장 취임식이 있었다. 마지막날 출범식에서는 본보 사진부기자(터어키어과 2)양의 전국애국기자상 수여식이 있었다.

비내리는 졸업식 지난 달 27일(금) 1997학년도 학위 수여식이 진행됐다. 본래 서울배움터 주차장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대강당으로 장소를 옮겨야 했다. 취업대란 속에서 졸업하는 학위 수여자들은 사진촬영마저 우산을 받치며 촉독하게 해야 했다.

임승희 기자

동대 복학생 예비학교 진행

지난 6일(금) 서울배움터 교수회관 소강당에서 동양어대 복학생 예비학교가 열렸다.

이번 예비학교는 동대 복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요사이 학교 얘기 △수강신청 Q&A △끝나기 전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교무처 직원이 참석해 수강신청에 대한 복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리도 마련됐다.

복지장학금 신청접수

서울배움터 학생복지 위원회는 1학기 복지장학금신청을 받는다. 오늘(9일)부터 오는 18일(수)까지 접수를 받는 이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학부모 재산세 과세정도, 학부모 연령 및 생사여부 △특별접수(생활보호대상자, 직계가족입원, 대학생형제, 혼인, 과회장 추천서 참조, 기타 재해)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재해해당자의 경우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학부모(미)과세증명서를 접수기간에 학복위로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 발표는 오는20일(금) 교내 게시판을 통해 공고되며 같은 날 오후부터 학생처에서 장학증서를 발부받은 뒤 제일은행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영상 사업단 단장 오세희 양을 만나

이사람

"학내 영상 소모임 발전을 위해 과 단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학생들과 같이 영화를 보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며 영상사업단 단장 오세희(신방과 96)양은 첫 말문을 열었다.

지금 학생회 자치기구로서 위상을 잡아가고 있는 영상사업단은 과내 영상소모임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에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과내 영상소모임이 생겼다"며 오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우선 우리 뜻과 맞는 과내 영상소모임과 연대해 가며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양은 "우리는 현재 200여편의 영화 테잎과 기자제를 가지고 있다"며 "과내 영화소모임에서 요청할 시 언제든지 빌려 주겠다. 단 영화를 본 후 우리와 꼭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은 토론하기 위한 영화와 영상에 관련한 원칙과 자료가 없는 상태이다"라며 "과내영상 소모임과 연대 과정속에서 같이 영화와 영상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근간과 원칙을 세워 나가겠다"며 자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영상사업단의 과지원은 과방 영화제, 수요영화제, 각과 제작 영상의 편집부터 과영화제 지원 등이 있다. "올해 과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과내 영상소모임을 만드는 일과 수요영화제의 정착, 과영화제 총화자리미련 등을 추진 중이다"라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했다.

"경희대는 주중 200여명의 학생들이 영화제를 관람하고 있다. 하지만 그저 보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우리는 수요영화제를 정착 시킬 계획이다. 그 속에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우리학교만의 독특한 수요영화제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과영화제 지원에 대해 오양은 "과영화제에서 무의미하게 비디오 테잎을 구해 틀기 보다는 각과의 학생이 직접 영상사업단에 와서 자막을 넣고 과영화제를 상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며 과영화제를 함께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오양은 "지금 영화를 마음대로 상영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영화제를 열수 있게 작은 액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대학 당국에 공연장 문제를 요구 하였다.

이승준 기자

부총장, 처장, 학장 등 해임 및 신임

조규철 교수 총장 직무 대리에

지난 3월 1일(일)부로 발령이 난 조규철 총장직무대행을 시작으로 이튿날인 2일(월)부로 각 급 처장 및 학장의 인사이동이 대대적으로 단행됐다. 또한 우덕룡 서울 배움터 부총장은 2월 28일(토)부로 해임됐고 용인 부총장 등 15명도 3월 1일부로 해임됐다. 아래 표에서 먼저 나오는 이름이 신임, 뒤에 나오는 이름이 해임이다.

△서울 부총장-조규철(총장직무대행 겸임,불어과교수), 우덕룡(서반아어과)
△용인 부총장-오한진, 박성래
△서울 교무처장-박종평, 장 실
△용인 교무처장-김윤진, 조이환
△용인 학생처장-김성기, 권명식
△용인 총무처장-박갑성, 김인배
△기획조정처장-이종욱, 박석구
△연구협력처장-박 철, 구자용
△대학원장-박병호, 서정철
△서양어대 학장-장선영, 송윤엽
△동양어대 학장-민성홍, 김정위
△법과대 학장-박규하, 이균성
△상경대 학장-박동율, 이종걸
△동양학대 학장-송경숙, 류성준
△경상대 학장-이윤배, 정일용
△정보산업공과대 학장-김정국, 김중환

예비군 전·출입신고 및 주소 변경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예비군 또는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는 전.출입신고 및 주소변경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먼저 입학, 복학, 편입학, 복수전공자, 재입학자 전입신고는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비상기획관실에 전입신고를 마친다음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 병사담당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 또는 교직원은 직장예비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어솨요 ^_^

어서오세요! 유니텔동호회가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뇽? 어솨! 나 외대 유니텔 빵장 심주현이야!
만나게 되서 정말 방가 :-)
니들 우리 동호회에서 새내기 뽑는 거 아니?
일단 가입만 하면 정말 죽인다구!
시험족보 찐하게 뽑아주는 1004표 선배들에
취업,아르바이트 정보 확실하지,
다양한 문화이벤트로 꾸욱 찬 소모임은 기본이거덩!
게다가 빵빵한 신촌,강남포트 써클룸까지 확실하게
받쳐주니까 한 동아리하는 건 당근이쥐!
더 자세한 건 모집행사때 갈쳐줄께
마니마니 Come here해라! 그럼 난 20000.

외대 유니텔 동호회 신입회원 모집행사

◆언제:98.3.9~11 어디서:대학원로비
누구랑:98학번 새내기 누구나,
기타 학번도 환영!
◆행사에 참여한 새내기 모두에게 유니텔 무료가입과 근사한 선물까지!
◆빵장:심주현(경영학과 96)
H.P:018-351-0781

UNITEL 외대 유니텔동호회

추 모글-발해 탐사대 장철수 대장

철수형의 부활을 꿈꾸며

"형의 역사 · 민족 의식을 계승시켜 나갈 것이다."

"5천년 역사에 면면히 녹아있는 한민족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리고 싶다."

이것은 1천 3백년 전 발해인들의 해상교역 발자취를 찾아나섰던 '발해탐사대' 장철수 대장의 꿈이었다.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것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그에서 뗏목을 타고 발해 교역항로 탐사에 나섰던 발해탐사대 대원들의 사망과 실종소식이 전해진지 벌써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분이 있다. 그 탐사대를 이끈 장철수 대장이다. 그가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우리학교 노어과에 입학하면서부터 일 것이다. 찢기는 가슴과 피울음의 80년대를 보내면서 형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싶어했다.

형이 우리 모두 앞에 나타난 것은 1986년 이후 교내외적으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이 한창일 무렵, '독도문제연구회'라는 교내 동아리를 조직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독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 · 정리하는 한편 독도사진 전시회 · 강연회 등을 통하여 독도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이며 신라시대 이래 울릉도 도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뗏목을 타고 가기도 했다. 형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학교의 독도문제연구회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독도문제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도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실증자료들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형은 독도문제를 영토문제 이상으로 보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대응을 통하여 민족통일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였다.

동장군과 IMF한파로 한반도 전체가 꽁꽁 얼어붙어 있을 무렵, 형은 또다시 한민족의 위대한 기상을 일깨우고자 했다. 1997년 12월 31일 방안에 있어도 추운 그날 형을 비롯한 4명의 한국인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1998년 1월 17일 부산 도착을 일정으로 발해의 해상교역로 탐사에 나섰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 바닷바람과 허기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투지로 조류에만 의지한 25일간의 항해는 일본 오끼섬 앞바다에서 끝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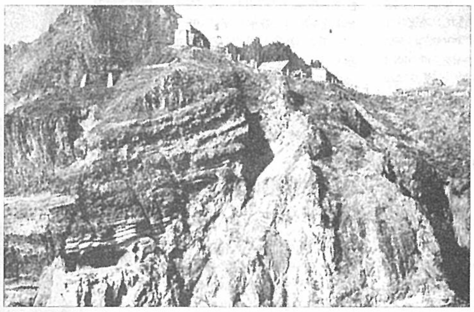
형이 우리들 앞에서 사라진 그날 1월 24일은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한 바로 다음날이고, 형이 사라진 그 장소는 일본에서 독도가 제일 가까운 오끼섬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왜 그때 그 장소에서 거두어야 했는가?

나는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시작이다. 형은 얼어붙은 한반도의 부활을 우리의 몫으로 남겨주었다. 5천년 한민족 역사속에 면면히 녹아있는 위대한 정신의 부활을 외쳤던 형의 꿈을 이제 우리가 실현시켜야 할 때이다. 형은 가지만 형의 꿈은 우리속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제 평안하게 형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철수형! 이제부터는 모든 근심 걱정 버리시고 우리의 부활을 지켜보소서!

홍성근
〈대학원 법학과 석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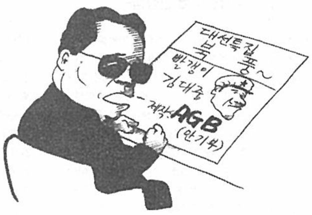
형은 '독도문제 연구회'라는 교내 동아리를 조직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사진은 독도를 경비하기 위해 설치된 경비초소의 모습니다.

알림 **투고를 받습니다.**

혼자만 감상하기아까운 외대인의작품을찾습니다.
문예작품, 시예, 미술, 만화, 광고 등
모든종류의작품을받습니다.
더불어 기존의학생위주의 한정된
참여가 아닌 교수,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외대학보—

해고시켜야할 공무원 1순위



음지에서 창작활동하는 공무원

박신일 〈서학 · 독어 4〉

영 화평-후라이드 드래곤 피시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실버와 레드를 통한 진정한 자아찾기

감독은 '이와이 수운지'다. '러브레터'를 넋을 잃고 봤던 나는 자연히 이 영화로 남다른 애정으로 보기 시작했다.

영화는 제목만큼이나 재밌다. 또한, 영화에 음악이 깔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영화 자체가 음악이었다.

이 영화의 존재가치는 '감각'이다.

용처럼 생긴 물고기가 있다. 레드와 실버 두 종류다. 레드가 희귀종으로 그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반해 실버는 그냥 금붕어 수준이다. 영화는 '토비아모'라는 야쿠자의 우두머리가 더벅머리의 그러나 매력으로 넘치는 한 소년에게 '실버 드래곤 휘시'를 한 마리 주면서 시작된다.

'선물이니 잘 키워라'

'뭐야! 슈퍼레드를 주기로 하고선 이건 그냥 실버잖아'

소년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방안이 온통 수족관인 그의 닫혀진 방안에서 그는 이 물고기를 정성스레 키운다. 그는 물고기를 통해 삶을 배운다. 약육강식. 그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이데올로기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 굶주린 사자에게 뜯어먹히고 싶어. 이왕 내가 상대보다 힘이 약해 죽을거면 더 날 세게 상대가 물어주길 바래. 힘이 더 세면 세질수록 난 더 쉽게 죽음을 맞이 할 수 있을거야. 그 힘을 느끼고 싶어'

컴퓨터를 파는데에 있어 끼워팔기 상품용인 한 여자가 있다. 탐정이라는 한 남자가 혹하는 마음에 그 컴퓨터를 사게 되고 이 여자와 같이 있게 되는데 끼워팔기 상품용품인 이 여자는 '쭉쭉 빵빵'과는 거리가 멀었다. 탐정은 어느날 고객에 의해 '토비야모'라는 주요비밀 인물을 알게 되고 그가 '슈퍼 레드 드레곤 휘시'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정보를 가지게 된다. 이제부터 탐정과 이 여자는 한 팀이 되서 '토비야모의 드레곤 휘시'를 찾아 나서는데 그러던 중 우연하게 여자는 우리의 더벅머리 그러나 매력이 넘치는 소년과 마주치게 된다.

방안이 온통 수족관인 그의 방에서 그녀는 한 곳에 시선이 박히게 된다. 드래곤 휘시.. '찾았어!!' 이제 이 여자는 야쿠자보다도 더 위험인물인 약육강식의 죽음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더벅머리이지만 매력이 넘치는 이 소년에게 접근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 접근은 사랑의 두근거림으로 바뀐다.(여기서 '아니 이건 너무 유치하고 진부하잖아'라고 말 할수도 있겠지만 감독이 누구인가. 이 뻔한 스토리는 뛰어난 연출력으로 '사랑'이 아닌 사랑의 '두근거림'으로 깔끔하게 진행된다)

이 여자는 소년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한다. 그러나 소년은 '난 밖에 한 발자국도 못나가. 토비야모에게 물어봐야 해'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말에 이 여자는 그냥 떠나 버린다.

한편, 토비야모는 경찰의 덜미가 잡히게 된다. 그러나, 더벅머리이지만 매력이 넘치는 소년을 데리고 그는 유유히 도망을 가는데 소년 '토비야모! 잠시만' 그는 그녀 앞에 홀연히 나타나 애기한다. '처음부터 너가 원한 건 이거였지. 가져. 바다엔 같이 갈 수 없어. 미안해.' 광속의 속력으로 민첩하게 사라진 그의 자리에 드래곤 휘시 한 마리 노니는 수족관이 대신해 있다. 여자가 멍청히 그걸 바라보는 사이에 한 팀인 탐정이 나타나며 하는 말 '이건 그냥 실버잖아?!'

이 여자 '그러면 그냥 후라이나 해 먹죠?'

접시 위에 올려진 드래곤 휘시 후라이. 그들이 그걸 먹고 있는 사이 옆에 켜진 텔레비전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토비야모 일당은 일단 도주를 한 것 같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 여자 '어, 이건 난소잖아. 전 안먹을래요. 아저씨나 드세요'

탐정 아저씨가 '꾸~울 꺽'하는 동시에 뉴스는 계속되면서 나온다. "이들이 밀수한 이 드래곤 휘시는 겉은 실버이지만 치밀한 계획하에 난소는 슈퍼레드의 것으로 이식함으로써 그것의 가격은 실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한 가격이라고 전문가들은... 또 어쩌고 저쩌고..."

토비야모가 리무진 안에서 소년에게 물어본다. '그 여자가 슈퍼 레드 드래곤 휘시보다 더 가치가 있었나?'

우리의 더벅머리지만 매력이 넘치는 소년은 그렇다는 의미의 미소를 짓는다. 이제 영화는 엔딩 크레딧만을 남겨두는가 싶더니 소년의 온통 수족관으로 된 방을 찾는 이 여자가 나타나고 그 앞에 'Bye Bye'라는 글자가 씌어진 스케치북이 수족관 안을 장식하고 있다. 의미있는 미소의 이 여자 옆모습이 이 영화의 라스트였다.

인생이 영화라면. 영화가 인생이라면. 어쨌든 삶은 지속되고 그 안에 화자는 '나'라는 개인이라면, 그것은 '나'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두렵지만 놓칠 수 없는 밧줄을 나에게 내민 영화였다. 그 '끼'에 압도된 그런 영화였다.(혹시라도 드래곤 휘시를 키우실 분들은 '실버'라도 잘 키우고 볼일 인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 · 소 · 확 · 인' 이기에..)

이혜경
〈서학 · 이태리어 3〉

사진 수필

언니, 예쁘게 찍어줘요.
- 야. 입학도 하기 전에 과방 청소해? / 이제 우리 과방인데 당연히 해야죠.
- 힘들지 않아? /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신나요, 하늘색으로 페인트 칠한게 제일 재밌어요.
- 과방이 맘에 드니? / 당연하죠. 우리가 직접 청소하고 꾸미면서 벌써 정들었는걸요.
-그럼 수고해라. / 과방에 자주 놀러 오세요.
-(어느새 그들이 주인이다.)

-지난 26일(목) 서울배움터 터키어과 새내기들의 과방 청소에서

우리의 입장

우리 350여 직원이 몸담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는 44년전 한국전쟁의 폐허속에 고 동원 김흥배박사께서 오직 인재양성만이 조국의 살길임을 깨닫고 선각자적 정신으로 설립하셨습니다.

그 동안 외대를 거쳐나간 많은 동문들이 국내외에서 국가발전의 동량으로 크게 기여하였으며 교직원, 학생등 외대 전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실로 우리우리 외대는 명실공히 명문사학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특히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 단계 도약하려는 이즈음 갑자기 몰아닥친 IMF한파로 인한 국내 경제사정의 어려운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경영을 맡은 재단과 교수, 직원, 학생 모든 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시기임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특별검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법인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을 졌던 박승준 전 전무이사의 그 동안의 파행적 법인 경영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그후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가 안정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무인년 신년사와 그 이후 밝히신 이숙경이사장의 결심은 학교운영의 정상화와 우리외대의 제2중흥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직원일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우리 직원일동은 이미 공인회계사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특별검사에서 밝혀진 박승준 전 전무이사의 비리와 전횡을 사실로서 인정하며, 박승준이사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재단이사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 직원일동은 재단이사회가 이숙경이사장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학교발전에 기여하기를 촉구한다.

-. 우리 직원일동은 고 김흥배박사와 함께 학교를 설립하신 이숙경이사장의 중임은 당연하며 이사장의 학교발전의 의지를 믿고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업무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학교의 안정과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임을 확인한다.

-. 법인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학사행정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1998. 3. 4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원 일동